

이 사람을 보십시오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Look at This Man

National Teacher Dosan Ahn Chang-Ho

Sangan Kim (Ed.), Young B. Choi (Tr.) / 김상안 편저, 최영배 번역

Published by OC Young Korean Academy/ 출판: 흥사단 OC 지부

목차

이 사람을 보십시오	4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1. 도산의 인간상	5
2. 애국적 정치가로서의 도산	6
3. 진정한 인격적 교육자로서의 도산	11
4. 시련기를 살아온 도산의 위대한 생애	20
5. 도산의 민족 경륜의 사상	49
6. 맺는말	65
7. 참고 문헌	67
저자 소개	145

Table of Contents

Look at This Man - National Teacher	69
Dosan Ahn Chang-Ho	
1. The Human Image of Dosan	70
2. Dosan as a Patriotic Politician	71
3. Dosan as a True Personal Educator	77
4. A Great Life through Trials of Dosan	87
5. The Spirit of the National Governance	123
of Dosan	
6. Concluding Remarks	142
7. References	144
Authors	145

이 사람을 보십시오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그는
애국자의 본보기요,
지도자의 귀감이요,

수양인의 사표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심정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 지 몸소 본보기로 가르쳐 준 위대한 인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도산은 그의 아호입니다.

이제 민족의 선각자요 미주 한인사회의 선구자이신 안창호를
조망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인간상(인격)을 부각하고, 둘째는 그의 생애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상을 규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1. 도산의 인간상

도산의 인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치가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60 평생을 혁명의 제단 앞에 바친 애국지사로서의 도산이요, 또 하나는 교육자로서의 도산입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이상적 본보기가 된 수양인으로서의 도산입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도산은 우리의 지표요, 민족의 위대한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애국적 정치가의 이상형을 발견하는 동시에 지성, 일관된 수양인과 교육자의 완전한 귀감을 또한 찾아볼 수 있는 바, 먼저 민족 독립운동에 온 생명을 바친 혁명적 정치가로서의 도산의 면목과 특색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애국적 정치가로서의 도산

한말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는 많은 애국지사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선봉이 된 서재필을
비롯하여 청년 지도에 공로가 큰 월남 이상재, 33 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산고보를 창립한 남강 이승훈, 한국의 간디라고
일컫는 고당 조만식, 문화사업에 업적을 남긴 인촌 김성수, 또
무력투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여러 망명 혁명가들, 실로
많은 인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풍운의 시대에는 인물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말의 여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도산은 다른 여러 인물들과 다음 세가지 점에서
분명히 달랐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확고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를 잃은
후 비분강개하는 애국자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맨주먹으로라도 일제와 싸우고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는
감정적 애국지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방법과
냉철한 계획이 없는 감정적 민족운동은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헛되이 수포로 돌아갈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확고부동한 민족경륜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독립과 번영을 쟁취할 수 있는가 하는 구국의 이론과 방향이 뚜렷하였습니다. 그는 감정적 흥분이나 비분강개하기에 앞서서 구국의 이론과 방법을 냉철히 연구하고 계획하고 창조해 내는 명철한 철학적 사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국의 철학은 무실역행주의에 의한 민족개조 사상이요, 인격혁명과 자아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흥사단 운동이었습니다.

도산은 이러한 민족경륜의 사상과 구국의 이론과 방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고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애국 독립운동을 한다고 나섰다가 중도에서 탈락하고 포기한데 비해 도산은 그의 마지막 날까지 불사조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민족정신의 수호자요 화신으로서 줄기찬 항일투쟁에 생애를 바쳤으니 이는 그에게 요지부동한 구국의 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실망 속에 빠진 동지들에게 언제나 밝은 희망을 주었고, 방향을 상실한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상이 있어야 하고 신념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산은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비전을 가졌고 위대하고 명철한 민족경륜의 철학을 아울러 갖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둘째, 도산의 사상은 남의 이론이나 지식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그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고 사색한 것을 토대로 하여 몸소 창조해 낸 독특한 이론입니다. 즉, 그의 사상은 남의 사상의 모방이 아니고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든 사상이라는 데에 그 사상의 독자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고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다급한 역사적 정치적 정세는 그로 하여금 조용히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하고 사무를 보고 독립운동에 동분서주하고 수년의 옥고를 겪었습니다. 도산의 사상은 이러한 직접적 체험과 허다한 고난 속에서 창조된 사상입니다. 그저 조용히 서재에서 남의 글만 읽고 연구해 낸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사상에는 그의 눈물이 스며있고 그의 고뇌와 한숨이 깃들여 있고 뜨거운 정성의 맥박이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족의 독립을 얻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구국의 일념이 그로 하여금 민족경륜의 사상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자아혁신이 곧 민족 혁신이요, 내가

나부터 나를 개조하는 것이 개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서로 사랑하기를 정의로써 하고 수양을 두텁게 하는 것이 곧 구국의 길과 통하며 나 자신의 건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주장한 것 등은 모두가 그의 사상적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그의 사상은 독립운동의 실천 속에서 우려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한 생명력이 있고 구국의 이론으로서 불멸의 가치와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셋째, 도산은 자기의 사상이 민족경륜의 철학이라고 굳게 믿고, 죽는 날까지 몸소 부르짖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상을 꾸준히 정성껏 실행한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자기의 구국이론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흥사단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흥사단 운동은 그의 사상의 구체적 결정이요, 또한 그의 민족경륜의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흥사단이 창립된 것은 1913년 안창호가 36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61세로 순국할 때까지 흥사단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혁명의 이론이 없는 곳에 혁명의 행동이 있을 수 없으며 독립의 사상이 없는 곳에 독립의 실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흥사단 운동은 민족독립의 사상이요, 방략이요, 실천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산은 한국과 결혼한 애국적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정열과 생명은 오로지 민족독립의 일념에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1937년 흥사단의 자매 기관인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불들리어

검사장에 섰을 때, 검사가 도산에게 “당신은 민족운동을 그만
둘 생각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때 도산은
“그만 둘 수 없다. 나는 평생에 밥을 먹는 것도 민족을
위해서요, 잠을 자는 것도 민족을 위해서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는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도산의 이 말
가운데서 진정한 애국자의 정신과 의지를 봅니다. 그는 실로
애국적 지도자의 완전한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3. 진정한 인격적 교육자로서의 도산

이번에는 수양인으로서, 민족적 교화의 스승으로서 진정한 인격적 교육자로서의 도산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산은 민족의 사표였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과 몸을 간직하고 어떻게 일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양인으로서의 그의 뛰어난 인간상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도산은 '참'의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미워한 것이 거짓이요,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이 진실입니다. 그의 인격은 참의 인격이요, 그의 철학은 진실의 철학입니다. 저마다 참되기를 힘쓰고 한국민족을 참된 민족으로 만들자는 것이 그의 숙원이었습니다. 그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청년 제자들을 교육할 때도 '참'이 그의 교육 이념이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하며 도산은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실천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저마다 '참'의 공부를 하자, 온 국민이 진실한 인간이 되기를 힘쓰자, 그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아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하였으니 내 평생에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 하라라' '네 가족 속과 내 가족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세우자고 거듭 거듭 맹세합시다' '나라 일은 신성한 일이요, 신성한 일을 신성치 못한 재물이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오' 도산은 스스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거짓이 협잡을 낳고 협잡이 불신을 낳고 불신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망친 최대의 원인의 하나가 거짓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각 개인의 가슴 가운데 진실과 정직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도산은 전 민족에게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일관의 인격으로 진실일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참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정신은 무실과 역행의 덕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둘째, 도산은 '사랑'의 인간이었습니다. 저마다 사랑을 공부하자. 서로 사랑하는 공부, 나라를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공부를 하자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를 무정한 사회라고

규정하고 저마다 유정한 사회를 건설하기에 온 정성을 기울이자고 외쳤습니다. 삭풍처럼 찬 바람이 도는 냉랭한 사회를 춘풍처럼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 그의 그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이천만이 다 같이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이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소. 미약하나마 동포끼리는 무저항주의를 쓰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세상에 마음 놓고 믿는 동지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으리요.”

그는 서로 사랑하기 공부를 주장했습니다.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로, 무정한 사회에서 유정한 사회로, 불신의 사회에서 신의의 사회로, 이것이 그의 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돈수(情誼惇修)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돈수'는 도산의 중심사상의 하나입니다. '정의(情誼)'는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요, '돈수(惇修)'는 두텁게 닦는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더욱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불행의 씨앗이요, 파멸의 원인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씨요, 번영의 원리입니다. 그는 우리가 힘쓰고 수양해야 할 덕목으로서 '정의돈수'를 언제나 외쳤고 그것을 정성껏 실천했습니다. 특히, 그의 동지애는 유별하였습니다. 동지에 대해서는 물질과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가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북만주에 망명, 여관에서 병으로 신음하는 불우한 동지 '이갑'에게 약값과 치료비를 보내느라고 운하공사의 인부가 되어 수개월 동안 노동에 종사한 그의 모습은 실로 눈물겨운 동지애의 발로요 본보기였습니다. 이 때 도산의 부인은 샷빨래를 하여서 그 돈을 보탤다고 합니다.

도산은 동포에 대해서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생각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샘물이 마르고 인화의 정신이 꺼져가는 오늘의 이 불행한 세대에서 우리는 그의 '정의돈수'의 사상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만년에 평양에서 30 리 떨어진 대보산에 조그마한 산장을 짓고 살았는데, 이것이 송태 산장입니다. 그는 산장 입구에 문을 세우고 '빙그레' 또는 '빙그레'라고 간판을 써 붙일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설 때에는 누구든지 빙그레 또는 빙그레 웃으라는 뜻입니다. 그는 한국의 요소요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빙그레' 라고 써 붙이고 조각이나 회화로 빙그레 웃는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국에 미소운동을 일으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대했을 때 빙그레 웃는 표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빙그레 웃는 밝은 미소는 곧 행복의 상징이요, 화기의 표정입니다. 그는 모든 한국사람의 눈시울마다 입언저리마다 빙그레 웃는 미소의 표정이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산을 평하여 '그 분의 정성과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나 가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줄만큼 그는 인자하고 자비스러웠습니다.

셋째, 도산은 근엄한 극기수양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근엄했습니다. '무심코', '아무렇게나', 또는 '되는대로' 를 미워했습니다. 한문에 '군자신독' 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산이야말로 언제나

자기를 삼가는 신독의 수양인이었습니다. 그는 높고 완전한 인격의 경지를 향해서 부단히 자기를 반성하고 정성껏 수양하고 씩없이 훈련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자세를 바로하여 어지러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앉을 때는 늘 정좌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에는 바르게 걸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결코 탈선이 없었고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절도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여도 지나쳐서 취기를 나타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도산은 엄하되 그 엄이 지나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호걸남아가 아니지만 근엄과 정성으로 일관된 고결한 인격자였습니다. 도산은 자기 자신부터가 그러한 인물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정성껏 수양하여 마침내 자기를 위대한 인격의 자리에까지 높이 끌어 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는 인물이 없다고 저마다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에는 인물이 없는가?” 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천병만마를 쳐 이기기는 쉬우나 내 습관을 이기기는 어려운 일이니, 우리는 이 일에 일생 동안 노력해야 한다.” 도산은 언제나 극기수양하고, 인물되는 공부를 꾸준한 결과 한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춘원 이광수는 상해에서 2년 동안 도산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 일로 우는 것은 보았지만, 노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국 남경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때, 도산을 간절히 사모한 혁명동지의 어떤 여인이 사랑의 정을 억제치 못하여 도산의 침실에 뛰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는 아버지다운 위엄있는 음성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을 찾소, 책상 위에 초와 성냥이 있으니 불을 켜고 보오.”라고 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그 음성과 그 말에 그 여인은 사랑의 정열에서 깨어나서 그의 말대로 초에 불을 켜고 잠깐 섰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남의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그 여인에게 그 정열을 조국에 바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 여인은 “나는 조국을 애인으로 삼고 조국을 남편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도산 앞에서 맹세하고 유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도산은 독립운동으로 동분서주하였기 때문에 부인과 같이 지낸 기간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독신의

생활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인관계로 남의 입에 오르내린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금전문제에 깨끗하였듯이 이성문제에도 순결했으며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양심은 아내 아닌 이성을 사랑하거나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산은 또 민주적 지도자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신념의 인간이었지만 고집의 인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서,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도 그를 미워하는 편협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 옳다 하므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는 것이어든, 내 뜻과 같지 않다 해서 이를 사문난적이라 하여 멸족까지 하고야 마는 것이 소위 사화 당쟁이었으니 이 악습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비록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정과 존경에는 변함이 없음이 문명국민의 본색일 것이다.”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장치가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 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서 도산의 민주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60 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쳤습니다. 아내에게 치맛감을
한 번도 사준 일이 없고 자식에게 연필 한자루를 사줄 겨를이
없이 민족독립에 전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 한 몸의 행복과
가정의 안락을 전혀 돌보지 않고 구국에 여념이 없었던 그는
새생활에 있어서나 공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도 비난할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의 본보기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 입니다. 우리 민족의 등불이요, 만인의
스승으로서 길이 추모를 받을 것입니다.

4. 시련기를 살아온 도산의 위대한 생애

도산은 1878년 11월 9일 평안도 대동강 하류에 있는 도룡섬에서 한 농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8년 3월 10일 일제치하의 혹독한 감옥생활로 인한 병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순국하니, 그 때 나이 61세였습니다. 이 60여 평생을 험난한 조국의 시련기에 살면서 우리 역사상 드물게 보는 고매한 인격을 그의 몸에 갖추었고 위대한 업적과 길이 빛날 교훈을 그의 언행에 담았던 것입니다.

지금 도산은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생애는 그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최대의 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성으로 수놓은 생애요, 눈물로 기록한 일생이며,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감격을 주는 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생애처럼 고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는 일곱살 때 아버지 안흥국을 여의고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며 고향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명민한

천성은 어려서부터 빛났으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하며 그의 앞날을
축망했습니다.

안창호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17 세
되던 1894 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그의 삶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명치유신으로
일찍부터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키운 일본은 대륙진출의
야망을 가지고 먼저 조선을 차지하려고 1876 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갖가지 방법으로 조선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줄지에 평양 시가지는 전쟁터로 변하고 가옥이
불타고 유서 깊은 고적들이 파괴되는가 하면 시민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런 참상을 본 소년 안 창호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청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땅에서 싸운것인가?' '왜 우리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 창호는 평소에 믿고 따르던 고향선배 필 대은을 만나 이런
심경을 서로 토로했습니다. 당시 필 대은은 일찍부터 새로운
학문에 접하여 국내외 정세에 상당한 식견을 지닌 보기 드문

선각자였습니다. 도산은 평소에 그를 통하여 국내외 정세와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었고 필 대은 역시 도산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존경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진지했고 안창호는 어렵듯이 사실들이 확실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도산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국이 마음대로 우리 강토에 들어와 설치대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은 평범한 농촌 소년이 지계를 내려 놓고 민족운동의 거보를 내딛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에 대한 각성은 결국 독립운동 사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고 이름만 있는 한국, 그렇다 힘이다! 힘을 기르자,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이 때부터 도산의 사상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의 사상은 힘을 기르자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그는 일생 동안 이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결론이 곧 인격혁명, 단결훈련을 통한 민족개조 사상이요, 흥사단운동 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진정한 힘을 기르자는 사상이요, 운동이요, 방법입니다.

도산은 스스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17 세 때 서울에 올라와 구세학당에 입학하여 기독교 사상을 배우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힘없는 한국은 열강세력의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지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이 서로 다투면서 한국을 노렸습니다. 이런 바람앞의 등불같은 민족의 위기를 당하여 한국민족은 스스로의 자각과 힘을 강조하는 근대화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봉이 서재필의 독립협회였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과 같이 갑신정변을 거사했다가 실패하여 망명한 서재필이 십수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 독립신문을 발행한 것이 1896년 4월이요. 그 해 7월에 독립협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사대의 배척, 민족의 독립, 국민의 자각, 서정 일신의 근대화 운동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연설이라는 것이 열리고 자유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1896년의 독립협회의 설립은 우리의 근대화를 고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도산이 독립협회에 가담한 것은 1897년, 그가 20세 때였습니다. 독립협회는 그 후 확대되어 만민공동회가 되었습니다.

1898년 7월 25일 대동강변에 있는 쾌재정에는 평양성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관리와 백성,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무명 두루마기를 입은 한 총각이 연단 앞으로 나서서 여유있게 청중을 둘러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괘재정 괘재정 하기에 무엇이 괘재인가 했더니 오늘 이 자리야말로 괘재를 부를 자리입니다. 오늘은 황제폐하의 탄신일인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축하를 올리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이니, 임금과 함께 즐기는 군민동락의 날이라, 이것이 첫번째 괘재요. 감사 이하 높은 관원들이 이 축하식에 우리들과 자리를 같이하였으니 관민동락이라 또한 괘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구별없이 한데 모였으니 만민동락이라, 더욱 유쾌한 일이니 이것이 오늘 괘재정의 세 가지 유쾌함입니다.” 괘재정이라는

정자의 이름과 만민공동회의 명칭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표현한 뛰어난 수사법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은 도산은 이어서 “세상을 바로 다스리겠다는 새 사또가 온다는 것은 말 뿐이외다. 백성들은 가뭄에 구름 바라듯이 잘 살게 해주기를 쳐다보는데 인모탕건을 쓴 대관소관들은 내려와서 여기저기 쑥덕거리고 존문만 보내니 죽는 것은 애매한 백성뿐 아닌가? 존문을 받은 사람은 잡아다 주리를 틀고 돈을 빼앗으니 이런 함정이 또 어디 있는가? 뺏은 돈으로 허구헌날 선화당에 기생을 불러 풍악 잡히고 연광정에 놀이만 다니니 이래서야 어디 나라꼴이 되겠는가? 진위대장은 백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책임인데 보호는 커녕 백성의 물건 빼앗는 것을 일삼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연설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감동과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회원 중에서 이상재, 이승만 등이 있었는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구세력의 사주를 받은 보부상파의 습격과 정부의 탄압으로 지리멸렬의 상태에 빠지고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에 청년 도산은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점진학교'를 세웠습니다. 도산은 교육자로서 교육에 온 정열과 지성을 기울였으니 그의 위대한 싹은 이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점진 학교는 물론 초등교육기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최초의 사립 학교요, 남녀공학의 학교였습니다. 이 점진이라는 학교 이름에 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즉, 점진은 쉬임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도산정신의 첫 표현이 곧 '점진학교'입니다. 그가 친히 지은 교가 속에도 점진주의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점진 점진 점진 기쁜

마음과, 점진 점진 점진 기쁜 노래로, **학과를 전무하되** 낙심
말고 하겠다 하세 우리 직무를 다'

도산은 애국자의 사표가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60 평생에
나날이 새로운 점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높은데를 향해서
진실한 인격을 향해서 꾸준히 점진한 그는 드디어 자신을
민족지도자로 육성하였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요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요행과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점진적으로 꾸준히 나아가려는 그의 정신과
태도는 참으로 건전하고 착실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산이 결혼한 부인과 같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것은 1902년 그가 25세 때의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은 안창호는 한국에 와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의사 Drew 의 집에 기거하면서 houseboy 로
일했습니다. 얼마 뒤 Drew 의 집을 나와 다른 미국인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현지의 공립소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곳 신문사에서 기자 한 사람이 도산에게
찾아와 사진을 찍고 경력을 물어 가지고 가더니, 그 날
석간신문에 '기특한 조선 노학생'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학교교장은 18 세 이상은 절대로 입학할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산에게 퇴교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산은 여교장을 찾아가 하소연과 애걸을 다해 보았지만, “당신은 23 세이니 입학시킬 수 없소”라고 거절하면서 학무과장에게 찾아가 보라고 소개장을 써 주었습니다. 도산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계속해야 되겠으므로 다른 학교를 찾아 갔으나 이 학교에서도 연령이 많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토록 난감해 하는 도산을 보고 주인집 미국인은 “그대는 동양사람이므로 키도 작는데 정직하게 스물셋이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슬쩍 열일곱살이라고 넘기어 버리라”하면서 미련하다는듯 편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산은 “나로서는 입학할 못하면 그만 두었지, 연령을 속일 수는 없다”고 대답하여 그 집 주부의 동정을 얻게 되고, 무엇 때문에 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권고하는가 하면서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입학하려는 학교에서는 여교장이 아주 친절하고 이해가 많아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산은 의문이 생겨 여교장에게 “왜 이 학교에서는 나를 내쫓지 않고 입학할 허가를 했는가?” 물었더니 여교장 대답이 그것은 해석 여하에 있을 뿐 17 세 까지 입학할 허가를 한다는 것은 미국학생에게 국한된 문제이지 동양사람에게 적용될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도산의 정직성과
향학열을 보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산은 무엇때문에 소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도산의 이상과 그리고 그 때의 기분은
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대학교를 차례대로 공부해
보자는 생각,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교육행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상세하게 연구하여 한국에서도 그 장점을 적용해 보자는
뜻이지 학교에서 축출을 당한 양값음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초학문부터 익혀야겠다는
생각과 또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영어를 기초부터 배우려는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입학은 못하면 그만
두었지 연령을 속일 수 없다는 도산의 정직성이 돋보이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인삼상인과 유학생들로 구성된
20 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삼상인들은
1899 년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인삼을 팔기위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왔으며 유학생들은 1882 년 한미수호조약 이후
도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 고용인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인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참상은 그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 다. 그는 교포의 조직과 훈련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한국인 두 사람이 상투를 마주 잡고 싸우는 광경을 미국인들이 둘러서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싸움을 말리면서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삼장사하는 이 한인 동포들은 약속한 판매지역을 서로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동포들의 싸움을 본 것이 동기가 되어 도산은 재미 동포를 문명한 독립국민의 자리에 까지 끌어올리는 일에 전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포들의 생활 향상에 전심하기를 스스로 맹세한 그는 그 날부터 이 일에만 골몰하였습니다.

도산은 매일 몇 사람씩 호별방문을 하여 청소와 정리정돈 등 미화에 힘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모두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그의 정성어린 활동과 높은 뜻에 깊이 감명되어 드디어 그의 지도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감화는 놀라웠습니다. 동포들은 어느 새 면도를 자주하고 컬러와 의복에 때가 없도록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말을 할 때도 이웃에 방해가 안되도록 나지막한 소리로 하였으며,

이웃사람이 싫어하는 냄새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날마다 동포들의 생활이 변해 갔습니다. 도산의 정성어린 지도와 본보기로 그들에게 생활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는 한 미국인 부호가 한인동포들에게 “당신네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왔소?”하고 물었습니다. 무얼 보고 그러느냐고 한즉, 그 미국인은 “당신네 한국인들의 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소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국인은 도산이라는 사람이 지도했다는 말을 듣고 곧 그를 만나 보기를 원했는데, 도산이 나이 든 노인이 아니고 젊은 청년임을 알자 더욱 놀랐습니다. 그 미국인 부호는 도산의 공적에 감사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그가 한국인을 지도하는 데 사용할 회관 하나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인삼상인들과 유학생들과는 계층적 대립 때문에 서로간에 알력이 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단체의 조직이 절실한 상황에서 1903년 9월 22일 안창호, 이대위, 박영순, 김성무, 장경, 박선겸, 전동삼, 김찬일, 박승지 등 9인의 발기로 미주한인사회 최초의 ‘샌프란시스코 한인친목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안창호는 친목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동포들의 교양과 단합에 힘을 기울이면서 노동주선을 꾀했습니다.

이무렵 하와이 한인노동자들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난 사람들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미국 본토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산은 학업에 대한 본인의 욕심을 접었고 이강을 비롯한 동지들에게도 이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한인 노동자를 구하려면 누구라도 희생적으로 교육지도의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친목회는 1904년 8월 1일 회장 김성무, 부회장 위운섭, 서기 이대위, 박선겸, 경찰에 이재수 등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회의 조직은 후에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의 조직요강과 똑같은 것으로 안창호는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적합한 공동체 구성에 처음부터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1904년 4월 이후 리버사이드로 옮겨 한인노동자들을 위하여 바쁜 시간을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면서 더욱 발전된 공립협회 조직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는 이미 오랜 기간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와 살았고 32개 인종이 모여 사는 다민족사회로서 인구조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은 오렌지농장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4년 말부터 하와이에서 노동계약이 끝난 한인들도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주로 한학과 교육을 받은

미국유학을 희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안창호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버사이드로 이사를 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는 '사시게'라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와 중국인이 운영하는 노동수용소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자기나라 사람들을 소개하고 남아야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한인 숫자가 늘어나자 중국인이나 일인들같이 집단수용 체제도 갖추어야 할 상황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인 농장주가 깨끗하게 정돈된 안창호와 이강의 거처를 지나가다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안창호가 한인노동자들의 실정과 노동주선소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그는 캠프 마련에 필요한 자금 1,500 달러를 빌려 주었습니다. 도산이 더 큰 집으로 옮겨 야학도 시작하겠다고 하자 그 주인은 큰 집을 마련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 13 명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조직은 노동주선소를 겸한 합숙시설과 집회장소로 바뀌어 거리 이름을 따서 "Pachapa Camp"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빌린 돈은 1 개월 반 만에 갚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한인노동자들의 근면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미국인은 안창호가 오렌지를 따서 담던 상자 각인을 보고 오렌지농장과 포장사업을 했던

Rumsey 씨라고 리버사이드 시립박물관장 Vincent Moses 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창호는 한인들의 품성을 향상시키며 미국인의 신망을 받는 훌륭한 자치생활을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인노동자의 생활과 습관의 고칠점을 늘 강조하면서 '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인들은 리버사이드에 미주 본토에서는 최초의 한인촌을 건설했고 기숙사 겸 집단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캠프안에는 직업소개소, 강습소, 영어학교, 야간학교도 세우고 미국교회를 빌려 예배를 보며 공동생활을 훈련하는 최초의 한인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인동포 지도에 전심전력하는 도산의 모습은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분골쇄신한 젊은 시절의 간디를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십수년 전에 리버사이드 지방정부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간디와 미국 민권운동가인 킹목사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동상을 시내 중앙에 나란히 설치하여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1907년 도산은 러일전쟁 후 일본의 보호조약의 체결을 보고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5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의 당당한 풍채와 웅장한 변론, 열성적인 인격, 기백에 찬

신념, 그리고 치밀한 조직력에 한국사회가 꺾목하고 경탄하여 미구에 민족 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1910년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병탄되기 4개월 전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날때까지 약 3년간 국내에서 종횡무진한 활약을 하였습니다. 도산의 역량은 다방면에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성좌와 같이 쟁쟁한 애국지사들과 정치적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을 순회하면서 애국연설로 각성시키고 계몽하였습니다. 그는 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청년학우회'를 조직하고 '태극서관'을 만들고 '도자기회사'를 설립하는 등 교육뿐 아니라 산업의 진흥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가 조국에서 활약한 시기는 짧았지만 민족의 가슴 속 깊이 심어 놓은 민족사상의 싹은 융성하게 자라서 10년 후에 3.1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도산은 교육에 의한 민중의 지도와 계몽, 그리고 산업진흥에 의한 민족자본의 육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표현의 하나가 대성학교 및 청년학우회의 창건과 마산동 도자기회사의 설립입니다. 대성학교란 이름이 또한 도산다운 특색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즉 도산은 점진적 방법으로 대성하는 인물을 양성하여 민족 독립의 중심력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사상을 양모하여 전국에 뜻있는 청년들이 대성학교로 모여들어 그의 깊은 감화와 지도를 받았습니다. 대성 학교는 한일합병으로

2년 만에 없어지고 말았지만, 진실정신, 죽어도 거짓이 없는 인품, 건전한 인격을 갖추는 애국청년의 양성을 목표로 한 이 학교는 민족주의와 독립 사상의 빛나는 전당으로서 중대한 역사의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1910년 봄, 실국과 비극의 시기를 맞은 도산은 해외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만주에다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고심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자금 관계로 실패하고 할 수 없이 시베리아와 유럽을 횡단하여 대서양을 건너 다시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것이 1911년입니다. 그 때 그가 지은 다음 노래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나를 떠나 가게 하니, 간다 한들 영 갈 소냐 나의 사랑 한반도야.”

이 거국가를 남겨 놓고 망명의 길을 떠난 도산의 모습은 오직 비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의 거국가는 그 후 여러 해를 두고 전국에 유행되었으니 춘원 이광수는 “이 노래는

진실로 작자의 뼈를 깎아 붓을 삼고, 가슴을 찢러 피로 먹을
삼아서 조국의 강산과 동포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요,

한국에서 돌아온 안창호는 1912년 2월 해외 한인사회를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킬 중추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초대 중앙총회장에 선출된 도산은 북미는
물론 하와이, 멕시코, 쿠바, 만주, 시베리아 등지의 지방총회를
지휘하며 민족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도산은 국민회 운영방침으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하나는 동포들의 당면한 권익옹호에 주력함이요, 또 하나는
생활개선을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개선의 목표는
환경의 미화와 신용의 확립이었습니다. 공립협회 시대에
도산이 강조한 것과 같이 청결을 위주로 하여 이웃 미국인
보다 더 깨끗하게 할 것을 권장하였고, 예의를 지키고
거짓말을 아니해서 신용을 세우며 Yes, No를 분명히 하며
언약한 것은 이해 득실을 떠나 지킬 것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상점에서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

“한국인 노동자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한국인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을 세우면 돈을 벌 수 있는 동시에 민족 전체의
위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용을 위주로 한

실례로 다음의 일화가 있습니다. 도산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의 직책으로 지방을 순회할 때의 일입니다. 한번은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나갔습니다. 그 때 대한인국민회의 한 간부가 말하기를 '이번 여행에 경비가 모자라 여기 어떤 한국인 목사님의 신분증명서를 빌려 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목사 행사를 하면 기차 샅을 할인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산은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들키면 나의 신용도 떨어지고 또 그 목사의 신용도 떨어질 것이니 그럴 수는 없는 일ियो, 경비가 부족하면 다시 들어가 며칠 있으면서 돈을 조금 더 장만해 가지고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하여 되돌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인국민회의 위신이 미국인에게 인정되고 회원들의 신용이 섬으로써 대한인국민회는 나라 없는 정부처럼 되어 우리 동포들은 일본 신민이 아니라 한국국민으로써 대우를 따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간에 여간한 범죄사고가 있어도 미국경찰은 이를 국민회에 넘기거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되고, 여행권이 없거나 휴대한 돈이 부족한 유학생들도 대한인국민회가 보증하면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인국민회는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를 간행하여 일제에 의해 억압된 민족언론을 되살리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항일민족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인국민회는 미국무성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자격과 권위를 인정받아 한인사회의 자치와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13년 6월 리버사이드 한인노동자 11명이 영국인 소유농장에서 일본인 노동자로 취급되어 주민들에 의해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회장 이대위는 미국 국무장관 William J. Brian에게 이들은 한일합방 전에 이민 온 한인들로서 일본정부나 영사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과 대한인국민회의 보증을 받을 경우 한인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Brian 국무장관은 한인사회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일본정부나 영사관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한인 대표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와 교섭할 것이라 하여 그 권위가 강화되었습니다.

1917년 1월에는 대한인국민회 동지들과 함께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우선 농업경영에 착수하여 민족기업을 일으키는 한편, 국제무역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불행히도 계속된 장마로 1927 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동포 김종림씨는 쌀 농사로 백만 장자가 되어 한인 사회는 물론 독립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917 년 6 월부터 12 월까지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이승만과 박용만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본래 하와이에는 1902 년 이래 이민계획에 의해서 건너간 동포의 수가 대략 만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에 종사했지만 그 후 10 년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었고 주로 사진결혼 등을 통해서 새 가정을 이루면서 2 세 사회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업에 종사하던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처음에는 친목단체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대한인국민회 지방총회로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놀룰루에 본부를 둔 이 지방총회는 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을 간행하는 한편 여러 섬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연락하고 관할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912 년 하와이 지방총회는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미주 본토로 부터 유력한 지도자를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이승만과 박용만 두 분을 모셔오게 되었는데 이씨는 주로 교육사업을, 박씨는 신문사 주필의 일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한인국민회의 재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인국민회의 재무원이 되었고 태평양학원도 설립하였습니다. 박용만은 용모도 상당했지만 언론과 교제술이 능하여 동포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고, 부인영어학교를 설립하여 스스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동포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회의 석상에서 논쟁, 욕설, 주먹질로 번졌고 다음에는 신문사 파괴, 회관 봉쇄 등으로 대결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법정에까지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안 어느 누구도 이긴 사람은 없었고 1917년 까지 하와이 한인 동포사회가 망해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걱정하던 중립파 인물들은 결국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를 초청해서 그 조정을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의 초청을 받고 하와이에 건너간 도산은 동포사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씨와 박씨 두 사람을 먼저 만나야 했지만 그들은 다같이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도산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동포들을 향해서 간곡한 호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연설회를 가지면서 시비곡직을 설명하고 동포 피차에 가져야 하는 협동정신과 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도산의 성의어린 호소는 동포들로 하여금 공동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모든 분쟁을 정지하자는 결의를 갖게 했습니다. 이 때 이승만은 여러 섬에 사는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철학박사이지만 지금 말박사가 오는 터이니 부디 조심들 하라'고 하면서 도산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1918년에는 멕시코 한인들의 초청을 받아 멕시코를 방문하였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급한 임금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멕시코 한인동포사회를 통합시키고, 학교 및 실업회사 설립 등을 독려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1902년 하와이에서 우리 이민이 시작될 무렵, 멕시코 농장경영자들도 우리 이민을 받아 들이게 되었는데 그 수는 약 6백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처음부터 형편없는 것이었는데 일정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소액의 숙식비를 지불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들 노동자 중에는 상당수의 군인출신과 지식층 인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멕시코 체류 동포들의 참혹한 생활문제를 들어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 상세한 보고를 보내는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청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 황사용과 방화중 두 사람을 파견하여 멕시코정부와 정식 교섭을 갖게 했습니다. 이 교섭의 결과 한인노동자들은 그 후 상당한 보수를 갖게 되고 비교적 생활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1년에 이르러서는 한인노동자 전부가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은 대개가 어저귀를 재배하는 농장이었습니다. 어저귀는 다년생 작물로서 해마다 그 외부의 큰 잎을 따서 쓰고 속에 있는 어린 잎은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해 또 그 다음 해에 자라는 대로 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부족한 우리 노동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자는 생각에서 연한 속잎까지 함부로 따서 다음해의 어저귀 생산을 격감시키고 혹은 농장 자체를 망치게 되는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농장주인들로 하여금 한인노동자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게 만들었고 따라서 모두 다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산이 멕시코에 도착해서 동포들 생활난의 근본 이유가 이런 사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농장을 찾아 다니며 동포들을 모아놓고 신용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상품시장이나 노동시장은 물론

어디서고 신용이 근본 자본이 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동포노동자들은 크게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모두가 신용 받는 노동자, 신용받는 한국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산은 곧 바로 농장경영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앞으로는 우리 동포노동자들이 절대로 신용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장주인들도 도산의 성실한 모습과 인격을 믿게 됨과 아울러 우리 동포들을 다시 고용하기로 하고 새 노동계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멕시코 동포들은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고 또 성실한 노동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을 찾아 유카단 해안까지 여행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포들은 그렇게 궁핍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산의 주의를 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에 변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특히 남자들이 바닷가를 슬슬 거닐다가 적당한 곳을 찾아 용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산은 동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오랫동안 동방예의지국 백성을 자처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먼 외국에 와서 어촌생활을 할 망정 조상때 부터

지켜온 예절을 잊어서야 되겠느냐” 하고 당장 변소를 짓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변소 짓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 도산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서야 동포들이 모여와서 도산이 잡은 삽을 빼앗는가 하면 저마다 자기 처소에 변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절실히 느낀 사람들은 이 어촌에 사는 우리 부인 동포들이었습니다.

도산의 일생에서 가장 대서 특필한 사건은 1913년 흥사단을 조직 창립한 일입니다. 흥사단은 민족 대업의 기초 작업을 위한 기관으로서 독립 운동을 위한 실력을 양성하려는 조직이요, 운동이며, 또 그의 사상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 원리와 방법과 정신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세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산은 다년간의 구국 운동에서 우리 민족의 고질이 지방적 파쟁과 분열에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이에 그는 우리에게서 협동과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흥사단을 조직할 때 팔도의 대표 여덟 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적 파쟁 의식을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둘째,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뒤에서의 수고는 내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린다는 것이 도산의 사업철학이었습니다. 흥사단은 그가 만든 조직이지만 그는 흥사단 조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린다는 그의 정신은 상해임시정부 조직의 경우에도 잘 나타났고 대성학교 설립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허영과 명예를 탐내는 영웅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한국인이 조직한 단체로 이토록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은 오직 흥사단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조직의 필요, 조직의 원리와 방법을 체험으로 알고 그것을 구현한 인물이 도산입니다. 흥사단이 일제의 탄압과 된서리를 맞으면서 오늘까지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파쟁과 분열이 심한 한국사회에서는 참으로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그가 계획 구상한 흥사단의 근본이념과 조직원리가 비범하고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 삼일 독립 운동이 일어나자 도산은 곧 상해로 건너 갔습니다. 상해에는 수 많은 독립지사들이 모여들었으나 지방적 파벌의식과 사상의 차이가 균용할거의 소 영웅주의로 대립과 분열을 일으켜 협동과 통일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인화를 도모하고 도리로 설득하고 대의를 위한 대동 단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시절의 그의 일기를 보면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국사를 끝까지 성공시켜 보려고 심혈을 기울인 눈물겨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를 역임하다가 사임하고 국민대표회를 주장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으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민족운동의 강렬한 중심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독립당을 창립하고 대공주의를 발표한 것은 1928 년의 일입니다. 이 때 그는 아직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독립할 만한 힘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준비와 계획과 실력이 없는 즉흥적 독립운동을 지양하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산업과 교육을 일으켜 무력과 문화력을 증강시키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장래 일어날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권토중래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상촌 설립의 구상이며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미국을 다시 왕래하고 북만주도 시찰하였습니다.

1925 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동포에게 드리는 글' (소위 갑자논설이라고도 합니다)은 그의 치밀한 독립운동의 원대한 방안 및 계획의 표현으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55 세 되던 1931 년에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도산은 일본경찰에 체포 호송되어 대전감옥에서 4 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후 그는 전국을 순방했으나 이르는 곳마다 일본경찰의 간섭으로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도산은 자기 고향에 가까운 대보산 송태에 손수 설계하여 산장을 짓고 은거하고 살았습니다.

1937 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1 개월 전에 일본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을 총 검거했습니다. 그 때 도산도 흥사단의 국내 조직체인 '동우회'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장병과 간장병으로 보석출감되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던 중 61 세로 운명하였습니다. 이리하여 1938 년 민족의 거성 도산의 60 생애는 막을

내렸으나 지사로서, 혁명가로서, 수양인으로서의 그가 남겨
놓은 위대한 업적은 영구히 빛날 것입니다.

5. 도산의 민족 경륜의 사상

앞에서 도산은 다른 여러 인물들과는 세가지 점에서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즉, 도산에게는 확고한 사상이 있었고, 그의 사상은 남의 이론이나 지식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그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고 사색한 것을 토대로 몸소 창조해 낸 독특한 이론이며, 자기의 사상이 민족경륜의 철학이라고 굳게 믿고, 죽는 날까지 몸소 부르짖고 실천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이 당면한 시대적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도산이 생존한 시대의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번영이었습니다. 즉, 일제의 정치적 지배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민족독립을 이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기본 '태제'였습니다. 도산사상의 초점도 이 태제에 집중되었습니다. 도산이 본 당대의 한국 현실은 국가적으로는 일제에게 국가를 빼앗긴 채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식민지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근대화에 뒤처져 낙후된 까닭에 문명부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 달성에 그치지 않고 독립 이후에 까지 미쳐 되찾은 나라를 문명부강한 나라로 가꾸어 한국민족 전체가 행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복실현이라는 과제는 우리 한국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목표가 아니고 전 인류공통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도산에게 한국민족의 행복은 동시에 전 인류의 행복실현이라는 궁극적 지향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도산의 생애와 행적에서도 그가 먼저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할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기 위하여 민족혁신과 개조를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 실행 조직으로 신민회와 청년학우회 그리고 흥사단을 창립한 것과, 아울러 일제를 축출하고 한반도 위에 새로운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과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 독립당 등을 만들거나 이끌었던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독립 이후의 한국,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함께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민족과 전 인류의 행복까지 연결시키는 매우 광범위한 사상체계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산은 한국 민족개조에 관하여 다양한 개념과 표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신민, 자아혁신, 인격혁명, 건전인격, 국민적 자각, 독립국민의 자격, 민족개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용어는 관념상의 개념들만이 아니고 그가 한말에 신민회와 청년학우회를 만들고 일제시기에는 흥사단을 만들어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절실하게 필요해서 만들어 시용한 실천적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한국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함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한국민족은 어떤 문제점을 지녔기에 도산은 이처럼 민족혁신과 혁명 그리고 개조를 외쳤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 당한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이하여 민족이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과 경쟁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핵심 이었습니다. 따라서 19 세기 말 제국주의 시기에 열강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민족이 자주독립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산은 이 점을 당대의 어느 누구보다 철저히 자각한 '자력주의자' 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동지 제위에게”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1912년 7월 7일 그가 미국과 멕시코와 하와이에 있는 흥사단 동지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이 서한 속에는 그의 사상의 핵심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컨대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만한 민족의 힘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과 앞으로 그런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가를 논한 것입니다. 도산이 진실로 하고 싶어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내가 이에 간절히 부탁하는 말은 이것이외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 말이외다. 우리의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외다. 독립이란 본 뜻이 내가 내 힘을 얻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함이요, 이 반대로 남의 힘만 믿고 남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노예라고 하나니, 만일 우리가 이름으로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만 쳐다보고 기다린다면 이는 독립운동에 모순이 되지 아니합니까” 세상에요는 요행과 우연은 없습니다. 힘이 일체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믿고 힘을 기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도산은 이와 같이 힘의 사상, 힘의 철학 힘의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참배 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 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 독립할 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독립할 만한 힘이 있음을 이룸이다. 세상만사에 작고 큰것을 물론하고 일의 성공이라는 것은 곧 힘의 열매다. 힘이 작으면 성공이 작고 힘이 크면 성공이 크고, 힘이 없으면 죽고 힘이 있으면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원리와 원칙이다. 그러므로 천 번 만 번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다. 그런즉 우리 흥사단은 근본부터 힘을 믿는 무리요, 힘의 부족한 것을 한탄하던 무리외다.”

도산은 힘의 필요와 힘의 양성을 주장한 다음, 무슨 힘, 어떤 힘을 기를 것이냐를 논하였습니다. 그는 단결의 힘, 도덕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지식의 힘, 금전의 힘, 인격의 힘을 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산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옛 사람과는 무엇이 다른가? 그가 말하는 새 사람이란 예전의 군주에 종속된 한갓 백성으로서의 신민이 아니라 새롭게 힘을 가진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신민은

신 국민을 줄인 말이며 국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힘을 가진 새로운 국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신민이 되는 길은 각 개인이 스스로 각성하여 자기를 혁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아울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가 존망의 기로에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민족의 혁신을 각 개인들의 자각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먼저 각성한 신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의식적으로 신민을 창출해 가는 민족개조를 위한 조직체들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산이 직접 만든 단체들이 신민회요, 청년학우회요, 흥사단이었습니다. 또, 대성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의 설립도 크게는 같은 뜻이었고 그 밖에 각종 계몽강연이나 언론활동 역시 결국은 같은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도산이 구상했던 신민의 창출을 통한 국민형성의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각 개인의 자발적 각성을 촉구하는 대중의 계몽과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편으로는 각종 조직과 제도의 시설을 만들고 활용하여 의식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범사회적 운동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산은 우리 겨레가 하루 빨리 일제를 몰아내고 살기 좋은 나라를 세워 영원토록 번영을 누리면서 세계평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상적 국가에 대한 간절한 꿈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되어 나타내곤 했습니다. 한말에는 '독립 자유의 신 국가' '유신한 자유 문명국' 이란 말을 썼으며 3.1 운동 후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는 '모범적 공화국의 건설'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옛 나라를 찾아 복스러운 새 나라를 세우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 민주국'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의 이상적인 민족국가에 대한 진지한 구상 속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일제시기에 도산이 염원했던 자주독립의 민주 국가는 물론 대한제국의 계승이나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우려 했던 것은 당연히 입헌공화제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는 삼선평연설에서 군주제 국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과 국민주권 사상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청년학생들에게 망국의 원인이 국가를 왕의 개인 소유물처럼 여기던 절대군주제의 낡은 정치제도에 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제는 종래의 신민의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의식을 확고히 할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주도해 만든 신민회의 정치적

목표가 일제의 침략을 물리친 다음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때 당시의 국호가 대한제국이었고 또 도산이 늘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 대한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실을 감안해 보면 곧 그가 세우려 했던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의 대한민국 건설의 목표는 한말 신민회운동을 통해서도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10 여년 후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극히 불완전하게나마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919년 6월 28일 임정의 각료로 추대된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무총장에 취임한 그는 취임연설에서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 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말 신민회 때부터 3·1 운동 후 임정 시기까지 도산이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적 성격은 특히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헌장에는 사유재산의 보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및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등 국민들에 대한 제반 시민적 자유의 보장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의 바탕 위에서 각종의 시민적 자유가 법률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도산의

독립국가 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도산의 건국구상은 192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사회민주주의 국가건설론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같은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1926년 7월 이후 중국에서 그가 앞장섰던 좌우합작의 대독립당 운동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간의 대독립당 운동과정에서 이루어진 도산의 새로운 독립국가 구상은 1927년부터 그가 주장했던 대공주의(大公主義)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정치적 자유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을 매우 강조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대공주의는 독립운동가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산이 정립한 것으로,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정치, 경제, 평등을 강조한 평등주의적 사상체계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본래는 자유와 평등을 함께 담고 있는 개념이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부르조아 시민계급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전 민족을 대상으로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더욱 비중있게 반영해 좌우가

협력할 수 있는 민족운동 목표를 설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보통선거제, 경제적으로는 토지 및 생산기관의 국유제와 교육에서의 의무교육제 실시로 전 민족평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되 특별히 사회경제적 평등이 강조된 신민주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밖으로는 민족간, 국가간 평등에 기초해 불평등한 제국주의적 세계질서를 극복함으로써 평화세계를 지향한다는 것이 1920년대 후반 이후 도산의 새로운 건국론이었습니다. 이 점을 특히 현대국가에서의 체제와 이념이라는 면에서 말하면 순수 자본주의 체제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와는 구별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국가건설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산의 대공주의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적 후기 독립국가 구상은 먼저 한국독립당의 강령에 반영되었고 그 후에도 임정을 비롯한 민족주의 각 단체의 정치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임정세력이 외세와 극좌, 극우 세력에 밀려 몰락함으로써 현실정치에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산은 자기 당대에 직면했던 민족 개조와 독립 달성이라는 민족 혁명의 과업에 우선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민족의 당면 과제를 뛰어넘어 인류

공통의 통시대적 가치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들 가운데서 독립 이후의 한국, 나아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그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산은 1919년 상해에서 동포들에게 '개조'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간절한 바람이고, 최종의 목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전 인류가 다 같이 절망하고 또 최종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이오? 나는 이것을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이라 하오. 이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동일한 대답이 될 것이이오."

이어서 그는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행복은 어디서 얻을 것이오? 나는 이 행복의 어머니는 '문명'이라 하오. 그 문명은 어디서 얻을 것이오? 문명의 어머니는 '노력'이오. 무슨 일이나 노력함으로써 문명을 얻을 수 있소. 곧 개조하는 일에 노력함으로써 문명을 얻을 수 있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이 일생에 힘써 할 일'은 개조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행복은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얻게되는
문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명은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의 어머니가 된다고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개조하여야 하겠소, 이 행복이 없는 한국! 문명되지 못한 한국!
반드시 개조하여야 하겠소. 문명이란 무엇이오? 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오, 명이란 것은 밝은 것이니 즉 화려하고
광명한 것입니다. 문명이란 것은 다 밝고 아름답되 문명치
못한 것은 다 어둡고 더럽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본래부터
귀하고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밝고 아름다운 곳에는 있으되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명한
나라에는 행복이 있으되 문명치 못한 나라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어머니는 문명이라 하였소.”

그렇다면 그가 행복을 전 인류의 궁극적 가치로 여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한국 민족을
비롯한 세계 약소 민족의 불행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산은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을
맞아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재미 한인들의 불행한 처지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동포들은 집안을 가꾸는 정원의 희락도 즐기지 못하였습니다. 도산은 한국민족은 경영에서 맛보는 사업의 희락도, 진리를 깨쳐가는 학문탐구의 기쁨도 없으며 그 밖에 도덕의 희락이나 가정의 희락, 사교의 희락도 일체 일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전하고자 했던 연설 요지는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현상의 설명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독립을 위한 동포들의 분발과 단결을 촉구하는데 있었습니다. 도산은 당시의 한국민족이 아무런 기쁨이 없이 총체적으로 불행의 늪에 빠져있음을 통렬하게 말한 후 삶의 기쁨에서 나오는 힘이 나라를 회복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산이 본 당대의 한국현실은 국가적으로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채 자유를 억압당하고 근대화에 뒤쳐져 문명부강하지 못해 행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달성에 그치지 않고 독립 이후에 까지 미쳐 되찾은 나라를 문명부강한 나라로 가꾸어 한국민족 전체가 행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은 또한 한국민의 현실과 과제가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약소민족들 공통의

현실이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실현이라는 과제는 우리 한국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목표가 아니고 전 인류 공통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산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1919년 도산은 상해의 한인교회에서 '우리는 사랑합시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말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파함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것을 중히 여기오? 혹은 군국주의, 사회주의, 그 아래 정치, 상업, 그 아래, 그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러느냐 한즉 행복을 위함이라 답하리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행복의 최고원소라."

사랑을 행복의 최고원소라고 단언한 도산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행복은 생존과 안락이라 생존과 안락이 인류의 행복이 되나니, 사람이 생존함에 무엇으로 하나요? 의식주라, 안락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든지 사랑이 있어야 안락이 있소, 내가 지금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주고 받을 곳이 없으면 안락이 없소.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이가 행복이오..."

그는 행복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로 생존과 안락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그가 문명을 행복의 어머니라 한데서 유추해 보건데 그가 말한 생존은 행복의 외부적 상황적 조건으로서 문명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울러 안락은 사람 사이의 사랑을 뜻한다고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면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이 없이는 안락이 없고 따라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행복이 있음을 그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산은 '애기애타(愛己愛他)'라는 휘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그의 전체 사상체계 속에서 자리 잡은 가치로서 구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여겨 집니다. 먼저 그는 민족개조론의 구체적 표현인 흥사단사상을 통해서 수련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덕(德), 체(體), 지(智) 세 방면의 수련을 통해 자기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봉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때 이웃이란 가까운 친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 나가면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류전체에 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봉사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도산은 한국독립 이후에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최고원소로 사랑을 강조하고 애기애타의 박애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21 세기 미국의 다민족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맺는말

지금까지 60 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인간상 그리고 사상을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치맛감을 한 번도 사준 일이 없고, 자식에게 연필 한 자루를 사줄 겨를이 없이 민족독립에 전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 한 몸의 행복과 가정의 안락을 전혀 돌보지 않고 구국에 여념이 없었던 그는 사생활에 있어서나 공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도 비난할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의 본보기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등불이요, 만인의 스승으로서 길이 추모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춘원 이광수는 이순신과 도산을 한국의 가장 뛰어난 2대 인물로 숭배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민족의 한 분이 도산입니다.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는 우리가 상기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신념과 힘을 주고 좌절 속에서 비전과 용기를 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숭고한 생애와 위대한 인간상

그리고 민족경륜의 사상은 지도자의 본보기로서 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7. 참고 문헌

1. 안병욱: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흥사단 출판부 (1990).
2. 주요한: 안도산 전서, 삼중당 (1963).
3. 박만규: 흥사단의 이념과 활동. 도산학회 (2003)
4. 21 세기 도산사상의 새로운 키워드, 도산회보 (2007)
5. 흥사단: 흥사단 교본 (1996)
6. 윤병욱: <나라 밖에서 나라 찾았네> 박영사 (2006)
7. 도산사상 연구회: 도산사상 연구 (1986).

Look at This Man

National Teacher Dosan Ahn Chang-Ho

There is a great people's teacher that we can proudly present to the world. Its name is Dosan Ahn Chang-ho. He was an example of a patriot, an example of a leader, a model of a foster, and a lamp of the nation. What is to love the country, what kind of heart and attitude to be a leader of the nation, and how to live and act in life, the great person who taught us as a personal example is Dosan Ahn Chang-ho.

Dosan is his pseudonym.

Now, I would like to look at Ahn Chang-ho, the pioneer of the nation and the pioneer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The first is to highlight his human image (personality), the second is to examine his life, and finally, to examine his ideas.

1. The Human Image of Dosan

The human image of Dosan can be summarized in two aspects. One of them is Dosan as a patriotic governor who devotes 60 lives to the revolutionary altar for national independence as a politician and Dosan as an educator. In other words, it is Dosan as a foster person who has become the ideal example of everyone in thought, speech, and action. In any case, Dosan was our indicator and a great example of our nation. We can find the ideal type of a patriotic politician in him, and at the same time find a perfect example of intelligence, consistent foster and educator. First, let's look at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Dosan as a revolutionary politician who devoted his whole life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2. Dosan as a Patriotic Politician

From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until recently, there were many patriotic branches and figures in Korea. Including Seo Jae-pil, who was the forefather of the modernization of Korea, Wolnam Lee Sang-jae, who has a great contribution to youth guidance, Namgang Lee Seung-hun, who founded Osan High School as one of 33 members, Jo Man-sik, who is called Gandhi in Korea, Incheon Kim Sung-soo, who left achievements in cultural busines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men and women of revolutionaries who had unfolded the anti-Japanese movement through armed struggle. It is said that in the era of wind luck, many people are born. However, Dosan, one of the many characters in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three ways.

First, he had a solid idea. In fact, after the loss of the country, there were a number of patriots with dissension. There were many emotional patriots who said it was okay to fight

Japanese imperialism and die in prison even with bare fists. However, it was quite obvious that the emotional national movement without careful methods and cool plans would yield no fruit and go to waste in vain. However, he had a steadfast thought of the national governance. The theory and direction of the salvation country was clear about how we can save the country and achieve independence and prosperity. He had a clear philosophical thinking ability to thoroughly study, plan, and create the theories and methods of salvation prior to emotional excitement or dissension. His philosophy of salvation was the ideology of reforming the nation by retrogressionism, and the so-called Heungsadan movement with the contents of personality revolution and self-innovation.

Dosan was never disappointed in the midst of hardships and never discouraged in the midst of trials because he had such thoughts of national governance and theories and plans of salvation. While many members of the patriotic independence movement had been eliminated in the middle of the movement and gave up, Dosan devoted his

life to the persistent anti-Japanese struggle as a protector and incarnation of the national spirit with the belief and will of the Phoenix until his last day. It was because there was the thought of saving his country and a firm belief that supported it. That is why he always gave bright hope to his comrades who fell in disappointment, and was able to throw a clear "vision" to the disoriented people. A leader must have an idea, a belief and a 'vision.' In this respect, Dosan was the only leader who had his own thoughts, beliefs, and vision, and with a great and clear philosophy of national governance.

Second, Dosan's ideas are not derived from others' theories or knowledge, but a unique theory that he personally created based on what he experienced and contemplated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other words, his thoughts are not imitating others' thoughts, but his own thoughts, which have his own unique characteristics. He didn't even get higher education and he didn't finish middle school properly. When he was young, he studied Korean Studies and came to America to study Education. However,

the urgent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at time did not give him the opportunity to study quietly. He worked and worked, served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uffered years of imprisonment. Dosan's thoughts are thoughts created through such direct experiences and numerous sufferings. It is not just an empty theory that has been quietly read and studied in the library, but his thoughts are filled with tears, his anguish and sigh, and a pulse of passionate devotion. His conviction of how we can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and live well gave him the idea of a national governance. Self-innovation is national innovation, and my transformation from me is the most reliable way of renovation, and to love each other as justice and to thicken discipline is to connect with the way of saving country and to have a healthy character. All of his claims as patriotism are his ideological features. As such, his thoughts were derived from the practi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o they had a strong vitality to move people and shined with immortal value and light as the theory of salvaging a country.

Third, Dosan firmly believed that his thoughts were the philosophy of the national governance, and he cried out and practiced himself until the day he died. He was a practitioner who consistently and carefully executed his ideas. He risked his life and put his theory of salvation into action, which was what emerged as the Heungsadan movement. The Heungsadan movement was a concrete decision of his thoughts, and was also the alpha and omega of his national governance. Heungsadan was founded in 1913 when Ahn Chang-ho was 36 years old. He devoted himself to the Heungsadan movement until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61. Where there is no theory of revolution, there can be no revolutionary action, and where there is no idea of independence, there can be no practice of independence. This Heungsadan movement was the idea, strategy, and practice of national independence. In other words, Dosan was a patriotic thinker who married Korea. His passion and life were focused solely on the convic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When he stood at the prosecutor's office after being caught in the case of Suyang Dongwoohoe, a sister organization of Heungsadan, in 1937, the prosecutor asked Dosan, "Do you have no intention of

quitting the national movement?" At this time, Dosan said, "I cannot quit. In my whole life, eating rice is for the nation, and sleeping is for the nation. While I breathe, I am a national movement leader." In these words of Dosan, we see the spirit and will of a true patriot. He is indeed a perfect example of a patriotic leader.

3. Dosan as a True Personal Educator

This time, we will look at Dosan as a foster person, a teacher of national edification, and a true personal educator. Above all, Dosan was the teacher of the nation. He was a great teacher in life who taught us how to live as human beings, how to keep the mind and body, and how to deal with work and people. Let's take a look at his outstanding human image as a foster person.

First, Dosan was a "true" human. What he hates most is lies, and what he loves most is true. His character is the true character, and his philosophy is the philosophy of truth. His wish was to strive to be true for each and make the Korean people a true nation. When he established Daesung School in Pyongyang and educate young disciples, 'truth' was his educational philosophy. Dosan asked the students to practice these things, saying, 'Even if you die, there will be no lies, "Do not lie even if you are joking.' 'Let us study 'truth' for each, and let the whole people strive to become

true humans, and that is the way to save the country.' 'Ah, lie, you are the enemy who killed my country, and the enemies of the king and parents cannot live with us under the same sky, so I will never lie again in my life.' 'Let's swear again and again that we will abandon the lies in your skin and in my skin and make it true.' Let us swear repeatedly. "The work of the country is sacred, and it is not right to do sacred things with unholy wealth or means.' 'A lie gives birth to misery, misery gives birth to distrust, and all misfortune comes from distrust. Therefore,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ruining our country is lies,' he thought. "We must keep the truth and honesty in each individual's heart," Dosan cried out to all the nations. This was his belief. He lived a life of truth during his life with a personality of consistent intelligence. His love of truth and hatred of lies was expressed in virtue of sincerity and realization .

Second, Dosan was a man of "love." Let us each study love. This was his wish when he studied to love each other, to love his country, to love his comrades, and to love his work. Among his writings, there is an article titled 'A heartfelt

society and a heartless society.' He defined our society as a heartless society, and cried out that we should put all our devotion to building a heartfelt society. His desire was to turn a cold society with a freezing wind like a spring wind into a warm and heartfelt society like a spring wind. He exclaimed.

"Let's study love and I also study love, let's study to love both men and women, and we all 20 million people, so let's become a nation who love each other."

"Why is our society so cold? Don't you have a warm energy? We must make a world that smiles round and round with love. Let us use non-resistanceism among our compatriots, although we are weak, let's get beat if we are beaten and be tolerant if we are insulted. Let's not treat evil as evil only among compatriots, but only love."

"Where else will there be happiness, as if there are comrades in the world who believe in peace of mind."

He insisted on learning to love each other. From the world of hatred to the world of love, from a heartless society to a heartfelt society, from a society of disbelief to a society of faith, this was his wish. He emphasized Jeong-Eui-Don-Su (情誼惇修). "Jeong-Eui-Don-su" is one of the central ideas of Dosan. 'Jeong-Eui(情誼)' means to love each other, and 'Don-Su(惇修)' means to practice diligently. In other words, it means developing a spirit of love for each other. The opposite of love is hatred. Hatred is the seed of misery and the cause of destruction. Love is the seed of happiness and the principle of prosperity. He always shouted "Jeong-Eui-Don-Su" as a virtue that we must strive for and cultivate, and practiced it with great care. In particular, his camaraderie was unusual. As for his comrade, he spared no material, love, and devotion. During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he became a demigod and exiled in northern Manchuria. He worked as a worker of a canal corporation for several months to send medicine and medical expenses to Lee Gap, an unfortunate comrade who suffers from illness at an inn. It was an example of a bare

comradeship. At this time, Dosan's wife is said to have added the money by doing wages laundry.

Dosan emphasized that we should cultivate a spirit of compassion and warm-heartedness for our compatriots at all times. In today's unfortunate generation, when the spring of love dries up and the spirit of gracious harmony is dying, we come to rethink his thoughts of 'Jeong-Eui-Don-Su'.

In his later years, he built a small hut on Mount Daebo, 30 miles from Pyongyang, and this is the Songtae Hut. He set up a door at the entrance to the lodge and post a sign saying 'Binggrae' or 'Bungrae'. When entering this house, it means that anyone should smile or laugh. He thought that he should create a smile movement nationwide by writing 'Binggrae' to the elements of Korea in places where many people gather. How beautiful is a smiling expression when dealing with people? A bright smile smiling is a symbol of happiness and warm energy. He earnestly hoped that the expression of a smiling would be engraved in every corner of the eyes and mouth of all Koreans. Someone commented on Dosan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of Christianity can

do anything with his devotion and love.' He was kind and compassionate enough to give that impression.

Third, Dosan was a man of stern self-mastery. He was serious about what he thought, said, and did. He hated 'Mindlessly', 'Any way', or 'As it is.' In Chinese, there is the word 'Gun-Ja-Shin-Dok'. Dosan was the adoptee of Shin-Dok who always refrained from himself. He constantly reflected, trained himself, and trained tirelessly toward the height of his high and perfect personality. He always had his posture straight when dealing with people and never got messed. When he sat down, he was always upright. When he walked, he walked right. Even when he was alone, he was careful about his appearance. He never deviated in words or actions, and he never deviated from courtesy. He was disciplined and in order. He did not show excessive drunkenness even after drinking and smoking. Dosan was strict, but there was nothing too much. He was never a heroic person, but he was a noble personality consistent with dignity and devotion. Dosan made a firm determination to become such a person from himself, and

he tried and trained himself with great care, and finally raised himself to the position of great personality.

Everyone laments that there are no people in our country. "Why are there no people among us?" He answered this: "The reason there are no people among us is that no one is trying to become a person. Why doesn't the person who laments that there is no person studying to be a person himself?" "It is easy to beat thousands of horse warriors, but it is difficult to overcome my habits, so we must work on this for a lifetime." Dosan has always practiced self-denial, and as a result of steadily studying to become a prominent character, he became the greatest person in Korea.

Chunwon Lee Gwang-soo has been serving Dosan in Shanghai, China for two years. He said he had seen him cry over the country, but he said he had never seen anger. During his independence movement in Nanjing, China, a woman from a revolutionary comrade, who longed for Dosan, could not restrain her love affair, and jumped into the bedroom of Dosan. Then he called the woman's name

in her fatherly dignified voice and naturally said, "Look for something, there are candles and matches on the desk, light a light and see." At his voice and words, the woman awoke from the passion of her love, and she lit a candle as he said, stood briefly, and then left his room. He respected the feelings of others. After a while he instructed the woman to dedicate her passion to her country. She said, "I will serve with my motherland as my lover and her country as her husband." She swore in front of Dosan and set out on the path to study in Europe. Because Dosan was activ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he stayed with his wife for only a few years. He was almost single. However, there was nothing to be said about by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He was pure in matters of reason, just as he was clean with money matters, and led a puritan ascetic life. His conscience could not love or violate the faithful relationship with his wife.

Dosan was also an example of a democratic leader. He was a man of faith, but never a man of stubbornness. He never forced his arguments on others. "If there is a right that has

been made to me, there will be peace in the world unless I admit that others have one right, and even if the opinions of others are different from me, I do not do the narrow work of hating him. In our country, people could not tolerate different opinions from the past, and insisted that only me is right, so that harsh party has arisen. This evil practice of cruel killing of a wrongly convicted family continues to this day because it was a so-called Scholars Execution and Party Dispute that although I could do wrong and others could be right, because it was different from my will, the scholars with opposite opinions were killed. Therefore, we must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speech. Even if the opinions are different, it is the true nature of the civilized people that friendship and respect remain unchanged." "Because there is a law that can be used for both rough and round stones, it is not a blame for someone else's personality not the same as mine." We can glimpse the democratic way of thinking of Dosan from these words.

He devoted his 60 lives to the national rescue movement. He never bought his wife a piece of clothes and devoted his entire life to national independence without any time to buy his child a pencil. Not taking care of the happiness of his own body and the comforts of his home at all, he was obsessed with saving his country, and he was a person who couldn't be blamed either in his private life or public life. He is an example of a great leader, a man of great character. As the lamp of our people and the teacher of all, the way will be memorialized.

4. A Great Life through Trials of Dosan

Dosan was born on November 9, 1878, as the third son of a farmhouse on Doryong Island in the lower reaches of the Daedong River in Pyeongan Province. He di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n March 10, 1938 due to a severe prison life under Japanese rule, and at that time he was 61 years old. Throughout these 60 years, he has lived in the difficult times of his motherland, equipping his body with a noble personality that is rare in our history, and embodies great achievements and lessons that will shine in his words and actions.

Dosan passed way and his is not now. But he left us with a great legacy. His shining life is the greatest legacy he has left for our people. Because it is a life embroidered with sincerity, a life recorded with tears, and a living lesson that always gives us strength and emotion. There is no legacy as noble as a great life.

When he was seven years old, his father, Ahn Heung-guk passed away, and he grew up with under his grandfather, and studied Korean studies in his hometown private school Seodang. His brilliant nature shone since he was young, so everyone in the town was amazed, and all the villagers recognize his prodigious brightness and promising future.

Ahn Chang-Ho grew up ordinary in the countryside. However, the Chinese-Japanese War in 1894, when he was 17 years old, was a shocking event that brought a major turn in his life. Japan, which had an early adopter of Western culture as the Restoration of the Myeongchi, had an ambition to advance to the continent, and first signed the Treaty of Ganghwado Island in 1876 to occupy Chosun. Then, finally, Japan had a war against the Qing Dynasty. The towns of Pyongyang were transformed into battlefields, houses burned, historic ruins were destroyed, and citizens had to take refuge. After seeing this tragedy, a few questions arose in the mind of Ahn Chang-Ho. He couldn't sleep because of the resentment of 'Why did the Qing and Japan fight in our land while they are at war?' 'Why should

Korea only be helpless in th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 Chang-Ho met with his hometown senior, Pil Dae-eun, whom he always believed and followed. At that time, Pil Dae-eun was a rare pioneer with considerable insight into the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as he was exposed to new studies from an early age. Through him, Dosan opened his eyes to the situation and national consciousness at home and abroad, and Pil Dae-eun also respected Dosan's intelligence and integrity.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on this day was even more serious, and Ahn Chang-Ho realized that the facts were coming to a certain reality. Dosan has come to one conclusion. 'It's because we have no strength because foreigners come to our homeland at will and talk about it.'

The Chinese-Japanese War served as the motive for an ordinary rural boy to take down the tragedy of the national movement by laying down an A-shaped carrier. This awakening of 'power' eventually became the core of the though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Korea had no power and only name, yes, it is power! Let's cultivate strength, we must first develop strength. From this point on, the idea of Dosan began to sprout. In a word, his idea is to cultivate strength. How can we cultivate the power of our nation? He pondered this throughout his life. The conclusion was the personality revolution, the idea of national reform through unity training, and the Heungsadan Movement. It is an idea, a movement, and a method to cultivate the true power of the nation.

Dosan came to Seoul at the age of 17 to cultivate his own strength and entered the Salvation Institute to learn Christian thought and become a member of the church. At that time, the powerless Korea began to be the target of political invasion and economic domination by the powers. Japan,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ught each other, targeting Korea. In the face of such a crisis of the nation like a lantern in front of the wind, a consciousness of modernization began to emerge, emphasizing self-awareness and strength. The spearhead was Seo Jae-pil's

independence association. It was in April 1896 that Seo Jae-pil, who had been exiled after failing to go to Gapsin Jeongbyeon with Kim Ok-gyun and Park Young-hyo, returned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ten years and published an independent newspaper. In July of that year,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was born. The modernization movement of the rejection of serving bog countries,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the awareness of the people, and the modernization movement of political reform started here. Thus,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speech was open, and the word freedom appe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in 1896 i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announces our modernization. It was in 1897 that Dosan joined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when he was 20 years old.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has since expanded to become an All Peoples Association.

On July 25th, 18th, a meeting of 'All Peoples Association' was held in the Pleasant Pavilion (Kwe-Jae-Jeong) near the Daedong River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reation of the Pyongyang Castle. On this day, a bachelor dressed in a

cotton robe stepped forward in front of the podium, looked at the audience leisurely, and slowly opened his mouth.

I was wondering what is 'Kwe-Jae-Jeong' and today is the day to express joy at this place to call for joy. Today is the birthday of His Majesty the Emperor, and since there has never been a time for our people to gather together and celebrate, it is the day of all the people's enjoyment with the king. This is the first pleasure. It is also a pleasure because the high-ranking officials joined us in this celebration. Also, since they were all together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of all ages, it is more pleasant, and these are the three delights of today's joyful finances." Dosan, who captivated the audience with an exquisite combination of the name of Kwe-Jae-Jeong and the name of the All Peoples Association, continued, "It is nothing but a saying that a new government official will come to rule the world right away. The people look at the drought to make them live like a cloud, but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wore public officer hats come down and sway around and send notices, so is it not only an ambiguous people dying? People who have been noticed are caught and thrown away and take money. Where else is this trap?

With the stolen money, he called a Gisaeng to Seonhwadang on every day and was caught playing in Yeongwangjeong, where would it be like that? A high rank official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but what will happen to our country if he takes care of the people's goods rather than protecting them?" After the speech, the audience applauded the speech they had heard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expressing their emotion and sympathy.

Lee Sang-jae and Rhee Syngman were the members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the All Peoples Association fell into a state of destruction due to the raids of the Bobusang Party, who were favored by the old forces, and the oppression of the government, and Seo Jae-pil went on the path of exile to the United States again.

In response, Dosan, a young man, returned to his hometown after drinking the torment of failure and established 'Jeomjin School'. Dosan, as an educator,

devoted all his passion and intelligence to education, and his great buds have emerged from this time on. The school is, of course, an elementary education institution, but it was the first private school and coeducational school built by the hands of people in Korea. This school name is more meaningful. In other words, Jeomjin means moving forward steadily without ceasing. Therefore, the first expression of Dosan spirit to 'cultivate the power of the people' is 'Jeomjin School.' The spirit of gradualism is well expressed in the doctrine he himself built. 'With a song of joyful heart gradually and gradually, and a song of joy that gradually progressed, let's do our best to complete our jobs but do not become discouraged.

Dosan pledged himself to become a patriot's leader and continued to study new gradualism every day in his 60th lifetime. He steadily progressed toward the high ground and toward a true personality, and he finally developed himself as an ethnic leader. A great mountain is created by collecting a lot of dirt and the old tower constructed with sincere labor doesn't collapse. Nothing happens suddenly.

There are no tricks and miracles in the world. His spirit and attitude to keep going gradually and steadily in whatever matters is truly a sound and sound way.

Dosan, along with his married wife, crossed the Pacific Ocean and landed in San Francisco, USA in 1902 when he was 25 years old. Ahn Chang-ho, based in San Francisco, worked as a houseboy while living in Drew's house, a doctor who had worked in Korea. Shortly thereafter, he left Drew's home and attended a local public elementary school, working for another American family. But one day, a reporter from a newspaper there came to Dosan to take a picture and ask about his career. On that day, an article titled 'Excellent Chosun Old Student' came out in the evening newspaper. For this reason, the principal of this school ordered Dosan to withdraw from school, saying that students over 18 years of age would never be admitted. Dosan went to the female principal and tried to complain honestly, but she refused, saying, "You are 23 years old, so I can't enroll you." She wrote a letter of introduction to the head of the academic affairs department to visit. Dosan

visited him with hope, but it was in vain. However, he had to continue his studies, so he went to another school, but he refused to say that he is also older in this school. Seeing the troubled Dosan, the host's American said, "You're an Asian, so you're short, but honestly, don't insist that you're twenty-three. Instead, just skip over it when you're 17 years old." However, Dosan replied, "If I couldn't enroll, I quit, I couldn't fool my age." He got the sympathy of the housewife, and for what reason he urged others to lie and even got into a marital fight. However, at the third school he was going to enter, the female principal was very kind and understanding so he got permission. Dosan was questioned and asked the female principal, "Why did you not throw me out of this school and admitted to me?" The female principal's answer lies in its interpretation. Isn't there anything that applies?" It was a decision made based on Dosan's honesty and enthusiasm. Then, what made Dosan try to enter elementary school? The idea of Dosan's ideals and feelings at that time started with elementary school, then junior high school, and university, in other words, the idea of experienc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firsthand and studying in detail, applying its

strengths in Korea. It means that you can see that it is never revenge for being expelled from school. And I guess there must have been a reason to learn English from the basics, and to learn English from the basics among young children. It is also an anecdote that stands out with the honesty of Dosan that he quits if he fails to enroll and cannot fool his age.

At that time, about 20 Korean Americans, consisting of ginseng merch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lived in San Francisco. Ginseng merchants came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China to sell ginseng to Chinese immigrants in 1899, and international students were people who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in 1882. He entered an American school to study language while earning his living by becoming a house employee. However, the tragedy of his compatriot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did not allow him to concentrate on his studies. He had to quit his studies for the organization and training of Koreans. One day, o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he saw two Koreans fighting face to face with Americans looking around and having fun. He immediately stopped the fight and asked why. Then, these Korean compatriots who sell ginseng have violated the promised sales area. Motivated by seeing the fights between these Koreans, Dosan decided to devote himself to raising the Korean Americans to the position of a civilized independent citizen. He pledged himself to devote himself to improving the lives of his compatriots, and from that day on, he devoted himself to this.

Dosan visited door-to-door by a few people every day and worked hard on beautification such as cleaning and tidying up. At first, they thought of him all as crazy, but they were deeply impressed with his polite work and high will, and finally they followed his guidance. As such, his influence was astounding. The Korean compatriots shaved often, cleansed themselves so that colors and clothes were not stained, made a quiet sound so that the neighbors were not disturbed even when talking, and tried not to show the smell or dirty look that neighbors hate. Every day, the lives

of the compatriots changed. With Dosan's polite guidance and example, the life revolution took place for them. One day, an American rich man asked Korean-Americans, "Is there a great leader from your country?" When asked what he was looking at, the American said, "Your Koreans' lives have changed unknowingly. This cannot be done without a great leader." When the American heard that he was led by a man named Dosan, he wanted to see him soon, but was even more surprised when he learned that Dosan was a young man, not an old man. To express his gratitude for Dosan's achievements, the American man provided a free hall that he would use to guide Koreans. However, because of the hierarchical confrontation between ginseng merch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was a strong conflict with each other.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n 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that can resolve such conflicts and promote friendship and provide economic help. On September 22, 1903, 9 members including Ahn Chang-ho, Lee Dae-wi, Park Young-soon, Kim Seong-moo, Jang Gyeong, Park Seon-gyeom, Jeon Dong-sam, Kim Chan-il, Park Seung-ji, etc. established the first 'San Francisco Korean American Fellowship.' Ahn Chang-ho

cited labor arrangement as a business that the social gathering should focus on, focusing on the culture and unity of the compatriots.

Around this time, among Hawaiian Korean workers, those whose contract period was over began to enter the US mainland without any measures. Dosan gave up his greed for his studies and actively recommended it to Lee Kang and his comrades. He thought, "To save Korean workers, anyone must sacrificially take charge of teaching." The social gathering was reorganized on August 1, 1904 as Chairman Kim Seong-moo, Vice Chairman Wi Un-seop, Secretary Lee Dae-wi, Park Seon-gyeom, and Police Lee Jae-soo. The organization of these meetings was the same as the organizational guidelines of the Public Association an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later. Ahn Chang-ho did a deep study from the beginning on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suitable for the unity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He moved to Riverside after April 1904 and spent a busy time traveling to and from San Francisco

for Korean workers, envisioning a more developed Public Association organization.

Riverside, California is a multi-ethnic society where large numbers of Chinese and Japanese people have been flocking to live for a long time, and it is also shown in the census. This is because the orange farm business was thriving. From the end of 1904, Koreans who had labor contracts in Hawaii also flocked here. These were people who wanted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mainly in Korea and who received an education in Korean Studies. Upon hearing this news, Ahn Chang-ho also moved from San Francisco to Riverside.

In Riverside, a Japanese-run employment agency called Sashige and a Chinese-run labor camp were already in place. They first introduced people from their own country and gave jobs to Koreans only when they remained. As the number of Koreans increased, it was absolutely necessary to have a group inclusion system like Chinese and single people. One day, an American farm owner was impressed

as he passed by the cleanly arranged residences of Ahn Chang-ho and Lee Kang. During various conversations, when Ahn Chang-ho explained the situation of Korean workers and the necessity of a labor agency, he lent \$1,500 for the camp arrangement. When he said that he would move to a bigger house and start night school, the owner even provided a big house. The Korean-American organization, which started with 13 people, was changed to a camping facility and a meeting place that doubled as a labor agency, and it was also called "Pachapa Camp" after the street. It is said that the borrowed money was paid back in one and a half months, which is a testament to the diligence of Korean workers at the time. According to Riverside Municipal Museum Director Vincent Moses, the American who lent the money is Mr. Rumsey, who ran an orange farm and packaging business and the engraving of the orange box used by Ahn Chang-ho is related with Mr. Rumsey. Ahn Chang-ho tried to improve the character of Korean Americans and to achieve an excellent self-governing life that earns the trust of Americans. In addition, he always emphasized the points to fix the lifestyles and habits of Korean workers, emphasizing that "picking up

even one orange very carefully is the path for our country.” As such, the Koreans built the first Korean village in the mainland of the Americas on Riverside, and built a dormitory and group camp. In this camp, a job agency, training center, English school, and evening school were also established, and the first Korean American community was formed to rent an American church for worship services and training in common life. In this way, Dosan, who devotes himself to the guidance of Korean Americans, reminds me of Gandhi in his youth when he was servicing diligently in South Africa to defend the rights of Indians. Decades ago, the Riverside local government installed statues of Gandhi, American civil rights activist Pastor King, and Dosan Ahn Chang-Ho side by side in the center of the city to recognize and publicize their contributions, now becoming a tourist attraction.

In 1907, Dosan returned to his country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fter seeing the signing of a protection treaty in Japan, in order to develop a national rescue movement. Korean society was remarkably admired by his dignified

appearance, grand argument, enthusiastic personality, spirited conviction, and meticulous organizational power, and soon became a central figure in the national movement. After that, in 1910, he was active in the country for about three years until he left his country in exile to the United States four months before Japanese imperialism. Dosan's capabilities have been demonstrated in many ways. He awakened and enlightened with patriotic speech while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while organizing Shinminhoe, a political secret society with the patriotic governors who were remarkable like the constellation at the time. He also established 'Daesung School' in Pyongyang, organized a 'Youth Student Association', created a 'Taegeuk Library', and established a 'Ceramics Company', and made efforts not only to education but also to promote industry. Although he was active in his country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buds of the national ideology planted deep in the hearts of the people grew prosperously and developed into the March 1st Movement 10 years later. In particular, Dosan emphasized the guidance and enlightenment of the people through education and the fostering of national capital through industrial promotion. One of the concrete

expressions is the establishment of Daesung School and Youth Alumni Associ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asandong Ceramics Company. The name Daesung School also best represents Dosan's character. In other words, Dosan tried to build the central force of national independence by cultivating people who stood out in a gradual way. With respect for his personality and thoughts, promising youths from all over the country gathered at Daesung School and received his deep influence and guidance. Daesung School disappeared after two years due to the annex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But, aimed at cultivating patriotic youth with a spirit of sincerity, a character that is not false even when they die, and a sound personality, this school has a significant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shining hall of nationalism and independence ideology.

In the spring of 1910, Dosan, faced with a period of failure and tragedy, left the path of exile abroad. In 1911, he struggled to create a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and tried in various ways, but failed due to financial relations, and forced to cross Siberia and Europe,

crossing the Atlantic Ocean, and arriving in California again in 1911. The next song he wrote at that time was so famous.

"Go, go, go, go, I go, I go after you, I am going. I got a meaning for a while. This time of luck, screaming at me, sticks out my back to let me go, even if I go, how can I go permanently, my love the Korean Peninsula."

The appearance of Dosan, who left this country with this song and left the path of exile, can only be said to be like burning his boats. His song became popular throughout the country for many years after that, so Chunwon Lee Kwang-soo said, "This song is truly a desperate plea and desire to the compatriots of the motherland with bloody ink by cutting his bones and stabbing his chest."

Returning from Korea, Ahn Chang-ho launched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in February 1912 as a pivotal institu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Koreans and promote profits by systematically integrating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osan led the

national movement by directing regional assembly in North America as well as Hawaii, Mexico, Cuba, Manchuria, and Siberia. Dosan established two principles as a policy for operating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one to focus on advocating the immedi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mpatriots, and the other to lead the improvement of life. The goal of improving living life was to beautify the environment and establish trust. In the era of Public Association, as Dosan emphasized, it was recommended to be cleaner than neighboring Americans by focusing on cleanliness. He emphasized to keep politeness, do not lie, establish confidence, clarify Yes and No, and also emphasized that a covenant should be kept regardless of the gains and losses of understanding.

"In Korean stores, you can buy things with confidence."

"A Korean worker can trust and take over the job."

"The Korean promise can be trusted."

He said that building credit in this way increases the prestige of the whole nation while earning money. The following anecdotes are examples of credit-orientedness. This is when Dosan toured the province under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Once, he went to the station to catch the train. At that time, an executive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said, 'I borrowed the ID card of a Korean pastor here because the expenses for this trip were insufficient, so if you carry out a pastoral event with this, you can get a discount on train fare.' Dosan thought for a while and said, "If I find myself using this, my credit will drop, and that pastor's credit will also fall. This is not possible. If the expenses are insufficient, let's go back in and get a little more money and have a trip." And Dosan came back.

In this way, the prestige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is recognized by the Americans and the trust of its members becomes more like a government without a country. So, the Koreans were treated separately as the Korean citizens. Even if there was a serious crime among Koreans, the US police handed it over to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or handled it with its opinion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ho did not have a travel ticket or lacked the money they carried could enter into America with the guarantee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published an institutional magazine, *The New Korea*, to revive the national press suppress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while also leading the anti-Japanese national movement through the media. Also,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has been recogniz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California State Government for the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enhancing the autonomy and righ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June 1913, 11 Korean workers at Riverside were treated as Japanese workers on a British-owned farm and were expelled by residents. At the time, General Chairman Lee Dae-wi asked US Secretary of State William J. Bryan to be Korean immigrants before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so that they would not be interfered with by the Japanese government or consular officers, and that they could exercise their autonomy if they were guaranteed by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In response, Secretary of

State Brian has strengthened its authority by saying that all matters concern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be negotiated with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as an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eople without going through the Japanese government or consulate.

In 1915, the Claremont Korean Language School (Student Training Center) was developed, and we did our best to educate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s in their forgotten native language so that they could inherit and develop the Korean people's national consciousness.

In January 1917, the North American Industrial Co., Ltd. was established together with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peoples. First of all, we started agricultural management to create a national enterprise, and developed a number of businesses, including financing for credit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but unfortunately, it went bankrupt in 1927 due to the continued rainy season. Around this time, compatriot Kim Jong-rim became a millionaire through rice farming and contributed

a lot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well as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June to December 1917, Dosan visited Hawaii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at the Hawaii Regional Assembly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Originally in Hawaii, the number of Koreans who had crossed over by immigration plans since 1902 has reached approximately 10,000. Most of them worked on sugar cane farms, but over the next 10 years, they gained stability in their lives, and a second-generation society emerged as a new family was formed mainly through photo marriage. Among them, compatriots who were engaged in commerce were the majority, and at first, they started as a social group, and later, they saw development as the Hawaii Regional Assembly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Headquartered in Honolulu, the regional assembly established a school, published newspapers, and reached out to and governed by compatriots living scattered across the islands. In 1912, the Hawaii Regional Assembly decided

to invite influential leaders from the Americas mainl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and brought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in charge. Mr. Lee was mainly in charge of the education business, and Mr. Park was supposed to be in charge of editor in chief, a newspaper company. However, Rhee Syngman thought that seizing the financial power of the Hawaii Regional Assembly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as the necessary path, and he became a treasurer of the regional assembly and established the Pacific Academy. Although Park Yong-man was very good in appearance, he was very popular among his compatriots because he was good at media and social skills, and he founded an English School for Wives and taught there.

From this time on, the compatriot society began to divide, and at first it was confronted by controversy, abusive speech, and punching at the meeting, then by destroying newspapers and blockade of the hall, and eventually, even in the US court. During this period, no one won, but until 1917,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Hawaii was destroyed. The neutrals who were worried about this

situation eventually agreed to invite Ahn Chang-h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to request mediation. Dosan, who went to Hawaii at the invitation of these people, had to meet with Lee and Park first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Koreans, but they avoided meeting together. What Dosan could do under these circumstances was to speak of a pleasing appeal directly to his compatriots. He gave speeches over dozens of times, explaining the controversy and emphasizing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the necessity of unity that must be brought to each other. Dosan's sincere appeal led the compatriots to hold a joint convention and unanimously stop all disputes. At this time, Rhee Syngman went around looking for his compatriots living in various islands and said, 'I am a Doctor of Philosophy, but now a Doctor of Speech is coming, so please be very careful.'

In 1918, Dosan was invited by Korean Mexicans to visit Mexico. This was to unify the Korean-American society in Mexico, which was living a miserable life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and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and companies.

By the time our immigration began in Hawaii in 1902, Mexican farm managers also accepted our immigration, which numbered about 600 people. The treatment of these migrant workers was poor from the start, but rather than a fixed wage, they paid a small amount of money for room and board. Among these workers, a significant number of soldiers and intellectuals were also mixed. Eventually, they have been the center of this, sending a detailed report to the North American Regional Assembly of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about the terrible life problems of the compatriots living in Mexico. At the same time, they have petitioned for cooperation in solving this problem. So, the North American Regional Assembly dispatched two people, Hwang Sa-yong and Bang Hwa-Jung, to have formal negotiations with the Mexic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se negotiations, Korean workers have been given a considerable amount of pay and have a relatively stable life. However, by 1911, all Korean workers were unemployed. Most of the farms that employed Korean workers were

farms where Indian Mallows were grown. It is a perennial crop that has to be picked year by year, and the young leaves in the inside are left as it is, and then picked as they grow in the following year. However, our workers, lacking in thought, felt the risk of drastically reducing the production of Indian Mallows in the following year or ruining the farm itself by picking soft inner leaves from the idea of making more money. This fact eventually made farm owners criticized that Korean workers are untrustworthy people, and thus all were fired. When Dosan arrived in Mexico, he discovered that the basic reason for the difficulties in life of his compatriots was in this situation, and he went to various farms and gathered his compatriots to have a serious discussion on credibility issues. He stressed that credit is the fundamental capital, not only in the commodity market or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anywhere. The compatriot workers were greatly impressed, and in the future, they came to the decision to become a trusted worker and a trusted Korean.

And Dosan immediately went to the farm managers one by one and explained that in the future, our compatriot

workers will show absolute confidence. Farmers also came to believe in Dosan's sincerity and character, and decided to hire our compatriots again and signed a new labor contract. Since then, Mexicans and Koreans have gained stability in their lives and have been given the title of faithful workers.

Also, Dosan traveled to the Yucatán coast in search of compatriots engaged in fishing. The compatriots living here were not so poor, but there was one problem that caught the attention of Dosan. There was no toilet in their house. In the morning, especially men wandered along the beach to find a suitable place to toilet.

Dosan gathered his compatriots together and asked, "Wouldn't we be the people of the Eastern courtesy country for a long time? Do we have to forget the etiquette that we have kept since our ancestors even if we are living in fishing villages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even after a few days, no man was found building a toilet. At this time, Dosan rolled up his sleeves and began digging the ground. Only then did the compatriots gather and take the shovel that Dosan had caught, and each started building a toilet

in their own place. It was our wife compatriots who lived in this fishing village who felt desperately to appreciate this.

The most remarkable incident in Dosan's life was the 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Heungsadan in 1913. Heungsadan is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cultivate skill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an institution for the basic work of the national cause, a movement, and a crystallization of his thoughts. The principle, method, and spirit will be explained later, but I will point out three things here.

First of all, Dosan realized that the endemic quality of our nation lies in local strife and division in the many years of the home country rescue movement. So, he felt that cooperation and unity are the most important one to us. When he organized the Heungsadan, he composed of eight representatives from eight provinces of Korea and tried to overcome the local consciousness of conflict.

Second, it was Dosan's business philosophy that no matter what kind of work he did, he would do the work behind the scenes and give the credit to others. Heungsadan is the organization he created, but he did not make his name in the Heungsadan organization. His spirit that the hard work is done by himself and the credits are given to others is well demonstrated in the case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Daesung School. He was by no means a heroism coveting vanity and fame.

Third, it is only Heungsadan that has such a long history as an organization organized by Koreans. Among Korean people, Dosan is the one who knew the need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the organization through experience and realized it. The fact that the Heungsadan has been steadily continuing to this day while facing the Japanese imperial repression and harsh frosts is uncommon in Korean society, where there is severe conflict and division. Indeed, it is because the fundamental

ideology and organizational principles of Heungsadan he planned were extraordinary and thorough.

When the March 1 March independence movement broke out in 1919, Dosan soon crossed to Shanghai, China. Many independent branches gathered in Shanghai, but it was very difficult to achieve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as the difference between local faction consciousness and ideology led to confrontation and division due to minor heroism. Even in such a situation, he did not show himself, tried to make harmony, persuaded them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insisted on grand unity for a bigger cause. If you look at his diary during the time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ou can see the tears that he devoted himself to trying to succeed in the grand work of the country while striving for success with all his sincerity and enthusiasm. He also resigned while serving as Interior Secretary and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sisted on the National Assembly, but collapsed due to communist strategies.

It was in 1928 that he founded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announced Grand Public Idealism to create a strong central system for the national movement. At this time, he knew that independence was not yet possible. It was because Korea was not ready and ready to become independent. He thought that the only way to do this was to avoid the improvised independence movement, which lacked preparation, planning, and skill, and to cultivate the power to become independent, to raise industry and education, and to augment the power of arms and culture. He also thought that he should prepare a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will take place in the country in the future and prepare for the reinforcement. This is the idea of his establishment of the Ideal Village, and as part of this preparation, he established the Heungsadan Far East Committee, and in the meantime, he traveled back and forth to the United States and toured northern Manchuria.

The "The Statements to Koreans" published in the Dong-A Ilbo in 1925 (so-called Gapja Editorial) was a shining

expression of his elaborate plans and plan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31, when he was 55 years old, Yun Bong-gil's Honggu Park case in Shanghai, China occurred. At this time, Dosan was arrested and escorted by the Japanese police and spent four years in prison in Daejeon, Korea. After he was released from prison, he toured the country, but he was deprived of his freedom of speech through the interference of the Japanese police everywhere he went. Accordingly, Dosan built a mountain hut and lived in a retreat by designing it by hand in Songtae, Mount Daebo, close to his hometown.

One month before the outbreak of the Chinese-Japanese War in 1937, Japan arrested Korean nationalists. At that time, Dosan was also imprisoned again along with the comrades of the "Dongwoohoe," a domestic organization of Heungsadan. However, he was bailed for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and died at the age of 61 while being hospitalized and tre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us, the life of Dosan of over 60, the nation's

giant, ended in 1938, but his great achievements as governor, revolutionary, and foster person will forever shine.

5. The Thoughts of the National Governance of Dosan

I mentioned earlier that Dosan was clearly different from many other characters in three ways. In other words, Dosan had a firm idea, and his thoughts were not derived from theories or knowledge of others, but a unique theory that he personally created based on what he experienced and contemplated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means that he had cried out and practiced himself until the day he died.

In fact, there are historical challenges faced by any nation or nation. In the era of Dosan's survival, the historical task of Korean society was the independence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other words, it was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chains of Japanese imperial political domination. This was the basic historical "thésée" at that time. The focus of the Dosan was also focused on this thésée. The reality of Korea at the time as seen by Dosan

was a colony that was oppressed by freedom while being deprived of the country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t the same time, civilization was not prosperous because it was lagging behind modernization in society. Therefore, there was no happiness. Therefore, his problem consciousness was not just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but to transform the country that had been recovered until after independence into a country with a strong civilization and to make the entire Korean people happy. In addition, the task of realizing happiness was not a goal only for the Korean people, it was also a common aspiration for all humankind. For Dosan, the happiness of the Korean people was also part of the ultimate goal of realizing happiness for all mankind. In the life and deeds of Dosan, he first insisted on national innovation and reform in order to create a new people to build and operate a modern nation-state, and further founded the New Citizen Association, Youth Student Association, and Heungsadan as specific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and also to expel the Japanese imperialism.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public associations,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and Independence Party

were created or led to accomplish the task of establishing a new modern n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fact that Korea after independence, and furthermore, all humanity had a sincere interest in the universal values that were aimed and pursued in common together shows that he maintained a very broad ideological system that links the people to the happiness of all mankind.

Dosan used various concepts and slogans regarding the Korean national reform. These are the new citizen, self-innovation, personality revolution, sound personality, national awareness, qualifications of an independent citizen, and national reform. These terms were not only ideological concepts, but practical concepts that he made and tried because he made it in desperate ne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movement by creating the New Citizen Association and Youth Student Association and the Heungsad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 was all implied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be reborn as a new person in a new era. Then, what kind of problems did the Korean people have at that time, so did Dosan call

for national innovation, revolution, and reform? Above all, it was the fact that the nation lacked the ability to survive and compete to maintain independence in the face of a new era that was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ist world order. Therefore, in order for the Korean people, who had not been able to open their doors to the powers in the late 19th century to open their doors to the great powers, to secure the right to live in independence and further develop while competing with them, they must cultivate their strength through fundamental changes and innovations. It can be seen that Dosan was a 'self-supporter' who was more fully aware of this point than anyone else in his day.

Among his writings, there is an article called "To My Comrades." This is an open letter he sent to his comrades in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Hawaii on July 7, 1912. The epistle contained a key element of his thoughts. In short, we discussed that the nation's power to achieve independence has not yet been prepared, that we should cultivate that power in the future, what is the content of the power we should cultivate, and how we can cultivate that

power. I try to translate the words Dosan really wanted to say.

"This is the other thing I am asking for. Other than this, raise your strength, raise your strength. What we believe and hope for is only our strength. Independence means that I gain my strength and live by relying on my own strength. On the contrary, it is a slave to believe only in the power of others and to live by relying on the power of others. If we only look at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and wait, will it not contradict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re is no fluke or coincidence in the world. Power determines all. Therefore, we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in strength and cultivate strength. Dosan thus emphasized the need for strength, the philosophy of strength. "As authentic pear is held in an authentic pear tree and stone pear is held in a stone pear tree, the people who qualify for independence have the fruit of an independent nation, and those who qualify to become slaves have the fruit of ruin. Qualifying to become independent is having the power to become independent. In everything in the world, not only small and

large, but the success of work is the fruit of strength. If strength is small, success is small, and if strength is great, success is great, and if there is no strength, die and live if there is strength. Therefore, even if we think about it a thousand times, it is only our strength that we believe and hope for our independence. Therefore, our Heungsadan is a group that believes in strength from the very beginning and a group who lamented the lack of strength.”

Dosan argued for the necessity of strength and the cultivation of strength, and then discussed what strength and what kind of strength he would cultivate. He said that we should cultivate the power of unity and morality, and also insisted that we cultivate the power of knowledge, the power of money, and the power of character.

Then, what kind of person is the new person Dosan refers to, and what is different from the old person? The new people he was referring to were those who recognized that they were not the subjects of the ordinary people who were subordinate to the old monarchs, but the masters of the

nation with new power. In other words, Shinmin is an abbreviation for the new people, and it was the people. So how can we create a new citizen with such power? Basically, the path to becoming a new people is the surest and most desirable way for each individual to awaken and innovate. However, in an urgent situation where the entire nation was at a crossroads of existence, it was not possible to leave only individual awareness of the urgently requested national innovation. It required a conscious and organized effort. First, awakening new people formed groups and consciously created groups of people for the reform of the nation. Thus, the organizations that Dosan made themselves were the New Citizen Association, Youth Student Association, and Heungsadan.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Daesung School and other schools was the same, and various other enlightenment lectures and press activities eventually came from the same purpose. In other words, the plan for the formation of new people through the creation of citizen envisioned by Dosan was basically in the enlightenment and education of the public that urged each individual to awaken voluntarily.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it was necessary to create and utilize

facilitie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them consciously and systematically.

Dosan had great hope that our Korean people should expel Japanese imperialism as soon as possible, establish a country that is good for living, and enjoy eternal prosperity and contribute to world peace. Thus, his desperate dream of an ideal country was sometimes expressed in many different words. In one word, "a new country of independence and freedom" and "a renovated free civilized country" were used, and when participating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expression "building a model republic" was used. Also, he said that he often said to people close to him, 'Let's find an old lost country and establish a blessed new country.' On the other hand, you can also see the expression "new democratic country" based on the equality of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All of these were words from his sincere contemplation of his ideal nation-state. It was not the succession or resurrection of the Korean Empire as well as the democratic state of independence that Dosan longed

f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at he wanted to establish was, of course, a modern democratic state with a constitutional republic. In his Samsunpyeong Speech, he clearly showed a thorough criticism of the monarchy and the idea of national sovereignty. He sharply pointed out to young students that the cause of the ruin was in the old political system of the absolute monarchy, where the state was regarded as the king's personal possessions. He emphasized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sense of citizenship now and to firmly believe that all the people are the masters of the stat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political goal of the New Citizen Association, led by him, attempted to establish a new republic family after defeating the Japanese inva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Korean Empire was the country's name at that time, and Dosan always used the word "Daehan", it can be said that the country he was about to establish was Republic of Korea.

However, Dosan's goal of building Republic of Korea was not finally realized through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New Citizens Association movement. Instead, it can be sai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in Shanghai, China more than 10 years later, was extremely incompletely realized. Thus, on June 28, 1919, he was the only person who was elected as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insisted in his inauguration speech to build a "model republic" that can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It can be said that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osan thought of from the Korean Empire period New Citizens Association to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to model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al government's charter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for the people, including the possession of private property,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and freedom of speech, assembly, association, and publication. In other words, it appeared as a free democratic state in which various civil liberties were guaranteed by law on the basis of the capitalist syste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idea of an independent state during this period was to build a lib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founding concept of Dosan, which aimed at a civil liberal democratic state, went through a great change in the mid-

late 1920s with the theory of building a social democratic state.

The direct momentum of such a change can be attributed to the movement of the Great Independence Party of left-right cooperation, which he took the lead in China after July 1926. Dosan's new idea of an independent state, which was formed in the course of the Great Independence Party movement for two to three years, is also directly connected with the Grand Public Idealism he argued from 1927. It is based on political freedom, while emphasiz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nd Public Idealism was established by bankruptcy to prevent the independence activists from dividing into democracy and socialism, and it was an egalitarian ideological system that emphasized politics, economy, and equality in order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ist ideology within the framework of a nation-state. Democracy was originally a concept that contained both freedom and equality, but historically it was because it had limited to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bourgeois civil class.

Accordingly, he tried to set the goal of a national movement that the left and right could cooperate by reflecting more heavily on the realization of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as well as political freedom for all nations. In other words, politically, the general election system, economically, the state ownership system of land and production institutions, and the mandatory education system in education would guarantee equality across the nation. In the late 1920s, it was aimed at a world of peace by building a new democratic nation that was based on political freedom inside but emphasized socio-economic equality, and further overcoming an unequal imperialist world order on the basis of equality between nations and nations outside. After that, it was the new founding theory of Dosan.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system and ideology in the modern state, it can be said to be a social democratic state construction theory that is distinct from the state of the pure capitalist system and the totalitarian communist system. The idea of a post-social democratic independence state based on Dosan's Grand Public Idealism was first reflected in the program of the Independence Party of Korea, and then became the political idea of each nationalist organization

includ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is unfortunate that after liber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wers were pushed down by foreign powers, far left and far right forces, and thus failed to lead to reality.

Dosan was compelled to devote to the task of national reform and successful independence which was confronted with his own generation. In the midst of that, he was paying serious attention to the common values of the age of mankind, transcending the challenges of the nation. Among the thoughts he had, his speech shows the universal values that Korea after independence and even all humanity can share.

Dosan gave a speech to his compatriots in Shanghai, China in 1919 called "Reform". Here, he said that 'complete happiness for all mankind' is the desperate desire of all humanity and the ultimate purpose.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all of us human beings in despair? I call this 'the complete happiness of all mankind.' This will be the same answer for all ages, men and women."

He then explained how to reach happiness. "And where will this perfect happiness come from? I call this mother of happiness as 'civilization'. Where will you get that civilization? The mother of civilization is "effort." You can achieve civilization by striving for anything. Soon we can gain civilization by striving to transform it. Therefore, he said, 'The work that our men will strive to do in their lives' is to transform.'

And he repeatedly emphasized that civilization (文明: 문명 (Mun Myung)) is bright and beautiful, and that it becomes the mother of happiness. "Everyone, we must reform our Korea, Korea without this happiness! Uncivilized Korea! Must be renovated. What is Civilization? A Mun(文) is a beautiful thing, and a Myung(明) is a bright thing, that is, it is splendid and bright. All civilizations (文明) are bright and beautiful, but all uncivilized things are dark and dirty. Happiness is inherently precious and good, so it is in bright and beautiful places, but not in dark and dirty places. Therefore, there is happiness in a civilized country, but no

happiness in an uncivilized country. That is why the mother of happiness is called civilization.

So, what is the background that led him to regard happiness as the ultimate value of all humankind? This may be because, above all, he saw the unfortunate reality of the world's smallest group of people, including the Korean people, with his own eyes and body. Dosan gave a lecture to the Korean Americans on the day of national shame when the country was taken away.

He enlisted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Americans at that time and urged them to exert themselves. At that time, our compatriots did not have the joys of the garden. Dosan pointed out that the Korean people did not enjoy the joys of business, the joys of scholarly pursuing the truth, nor the joys of morality, the joys of the family, and the joys of socializing at all. Of course, the main point of his speech was not to explain the phenomenon that there was no joy, but to urge compatriots for independence and unity again. Dosan said fervently that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were totally in a swamp of misery without any joy, and then said that the power from the joy of life will be the driving force to restore the country.

As such, the reality of Korea at the time as seen by Dosan was a state of lack of happiness as freedom was suppressed and civilization was not prosperous due to the lack of modernization and deprivation of national power by the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his problem consciousness was not just to achieve independence of the nation, but to transform the country that was regained after independence into a country with a strong civilization, so that the entire Korean people can enjoy happiness. And for him, it was also not a reality and a task for the Korean people, but a reality and task in common among several small peoples, including China. Therefore, the task of realizing happiness was not a goal only for the Korean people, but also a common aspiration for all mankind.

Then, what did Dosan think about the condition of happiness? In 1919, Dosan gave a sermon to the effect of

"Let's Love" at a Korean church in Shanghai, China. "... The next thing to say is that God is preaching love, and why do we value this? Or militarism, socialism, politics under it, commerce, under it, what do you do for what? I will answer for happiness. Love is the greatest element of human happiness."

Dosan, who affirmed that love is the highest element of happiness, also clearly explained the conditions of happiness. "Happiness is survival and comfort. Survival and comfort become the happiness of humankind. What do people do to survive? Food, clothing, shelter, what does comfort mean? Everyone has love to have comfort, and if I have nowhere to give and receive love to anyone, there is no comfort for me. The one who gives love to others is happy... "

He cited survival and comfort as two elements of happiness. From the previous analogy he called civilization as the mother of happiness, it is assumed that the survival he said refers to a civilized society as an external situational

condition of happiness. It is also directly saying that comfort means love between people. In particular, in terms of inner psychology, there is no comfort and therefore there cannot be happiness without giving and receiving love between people. He repeatedly emphasizes that there is happiness in showing love for others.

Dosan left the title of 'Ae-Gi-Ae-Ta (애기애타(愛己愛他))'. It is believed that this is not a simple verbal expression but can be concretely reconstructed as a value that has settled in his entire ideological system. First, he emphasized his training very much through the thought of Heungsadan, a concrete expression of the theory of national reform. Enlarging, deepening, and improving oneself through the three disciplines of virtue, body, and intelligence will be genuinely loving oneself.

Also, loving our neighbor is expressed in service. At this time, neighbor does not mean only close relatives, but if expanded, it can be extended to the nation, country, and

the entire human race, so I think it is a concrete expression of service.

As we have looked at so far, Dosan has cited the complete happiness of all mankind as a value to pursue after Korean independence. And he emphasized love as the highest element of happiness and presented the philanthropy of 'Ae-Gi-Ae-Ta (애기애타(愛己愛他))'. This is also directly connected to the universal values pursued by the multiethnic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21st century.

6. Concluding Remarks

We looked at the life, human image, and thoughts of Dosan Ahn Chang-Ho, who has devoted his life of over 60 years to the home country rescue movement so far. He never bought his wife a piece of clothes for her traditional Korean skirts, and devoted his entire life to national independence without ever having time to buy a pencil for his child. Not taking care of the happiness of his own body and the comforts of his home at all, he was willing to save his country, and he was a person who couldn't be blamed either in private or public life.

He is an example of a great leader, an outstanding character. As the lamp of our people and the teacher of all, his will be memorialized. Therefore, Chunwon Lee Gwang-su even said that he worshiped Yi Sun-shin and Do-san as the two greatest figures in Korea. Dosan is one of the nation's we can proudly bring to the world by saying, "Look at this man." Whenever the nation faces a crisis, he is the person we

should be reminded of. It is because he is a person who gives conviction and strength in despair and vision and courage in frustration. The noble life he left behind, the great human image, and the thoughts of the national governance will shine in history as an example of a leader.

7. References

1. Ahn Byung-wook: National Teacher Dosan Ahn Chang-ho, Heungsadan Press (1990).
2. Ju Yo-han: An Dosan Writings Collection, Samjungdang (1963).
3. Park Man-gyu: Heungsadan's ideology and activities. Society (2003)
4. A new keyword in the 21st century Dosan thoughts, Dosan Society (2003).
5. Heungsadan: Heungsadan Textbook (1996).
6. Yoon Byung-wook: <I found my country outside my country> Bakyoungsa (2006).
7. Dosan Thoughts Research Group: Dosan Thoughts Research (1986).

Autho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good comments regarding this book, please contact the authors below via email.



Sangan Kim

Young Korean Academy

Email: Tacomakim253@gmail.com



Young B. Choi

Regent University

Email: ychoi@regent.edu

